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16-4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2006. 8.

한국경제연구원

집 필 진

선임연구위원

허 찬 국

연 구 위 원

배 상 근

연 구 위 원

안 순 권

선 임 연 구 원

김 창 배

< 제 목 차 례 >

요약	v
제 I 장 최근 경제동향	1
1. 실물경제	3
2. 물가 및 임금	16
3. 노동시장	20
4. 금융시장	22
5. 외환시장	34
6. 해외경제	37
7. 경기에 대한 종합 판단	42
제 II 장 2006~2007년 경제전망	45
1. 대내외 여건	47
2. 국내경제전망	50
제 III 장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59
1.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부진 현황 및 원인	61
2.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63
3.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제 개편	65
4. 규제완화	68
<부록> 주요 경제지표	71

< 표 차례 >

<표 I-1> 지출항목별 증가율	4
<표 I-2> 지출항목별 기여도	5
<표 I-3>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7
<표 I-4> 소비	8
<표 I-5> 투자	10
<표 I-6> 품목별 수출	12
<표 I-7> 지역별 수출	13
<표 I-8> 용도별 수입	14
<표 I-9> 최근 경상수지	15
<표 I-10> 물가 추이	17
<표 I-11>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10인 이상 사업체)	19
<표 I-12> 전국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19
<표 I-13> 취업자 추이	20
<표 I-14>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21
<표 I-15>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추이	22
<표 I-16> 주요 금리 현황	25
<표 I-17>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추이	26
<표 I-18> 기업자금조달 추이	27
<표 I-19>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28
<표 I-20> 은행의 가계대출	29
<표 I-21> 금융기관 수신고	30
<표 I-22> 은행 및 비은행권 수신	31
<표 I-23> 금융기관의 단기수신 비중	32
<표 I-24> 주식시장 주요지표	33
<표 I-25> 원/달러 환율	34
<표 I-26> 자본 유출입 추이	36
<표 I-27> 미국의 경제지표	37

〈표 I -28〉 일본의 경제지표	38
〈표 I -29〉 EU의 주요 경제지표	39
〈표 I -30〉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40
〈표 I -31〉 유가 및 CRB 지수(기말기준)	41
〈표 II -1〉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47
〈표 II -2〉 2006~2007년 국내경제전망	58
〈표 III -1〉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고용증가	64
〈표 III -2〉 법인세 인하 관련 연구결과	66
〈표 III -3〉 소득세 인하 관련 연구결과	67
〈표 III -4〉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의 기대효과	70

<그림 차례>

<그림 I-1> 국내총생산 증가율 추이4
 <그림 I-2> 생산증가율 추이6
 <그림 I-3> 소비증가율 추이8
 <그림 I-4> 투자증가율 추이10
 <그림 I-5> 최근 수출 추이.....12
 <그림 I-6> 최근 수입 추이.....14
 <그림 I-7>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17
 <그림 I-8>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10인 이상 사업체).....18
 <그림 I-9> 시장금리 추이23
 <그림 I-10> 장단기 금리차 추이24
 <그림 I-11> 신용스프레드 추이24
 <그림 I-12> 주가지수 추이33
 <그림 I-13> 주요 통화 대비 원화환율 추이35
 <그림 I-14>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추이42
 <그림 I-15> 소비자기대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 추이43
 <그림 III-1> OECD 국가의 고용률과 노동시장 경직성.....63
 <그림 III-2> GDP 대비 법인세율의 국제비교65

I. 최근 경제동향

1. 실물경제

■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계절조정, 전기비 연율), 2분기 연속 둔화

- GDP(전기비 연율): 6.7%('05년 4Q) → 4.9%('06년 1Q) → 3.3%(2Q)
 - 민간소비가 둔화되고 건설투자가 급감(전기비 연율, -14.7%)했기 때문
 - 내수부문에 의한 성장기여도가 다시 하락(2.8%p('06 1Q) → 0.5%p(2Q))

■ 제조업 생산호조, 하반기 들어 주춤

- 상반기 두 자릿수를 보이던 제조업 증가율이 7월 중에는 4.7%로 둔화
- 서비스업 활동 증가율은 1사분기 6.1%, 2사분기 5.3%, 7월 2.1%로 둔화

■ 소비증가세 둔화

- 도소매판매: 4.3%('05년 하반기) → 3.8%('06년 상반기) → 0.7%(7월)
- 소비재판매: 5.6%('05년 하반기) → 5.2%('06년 상반기) → -0.5%(7월)

■ 설비투자 회복세 소폭 둔화

- 지난해 4사분기에 7.0% 증가했던 설비투자가 올 1사분기 4.6%, 2사분기 4.3% 그리고 7월에는 4.2% 증가에 그침

■ 건설투자 증가세 크게 둔화, 7월에는 마이너스 증가율

- 6.9%('05년 4Q) → 5.9%('06년 1Q) → 1.3%(2Q) → -0.7%(7월)

■ 수출호조세 지속

- 7~8월 수출증가율은 15.4%로 2사분기(16.9%)에 비해 소폭 둔화되었지만 상반기(13.8%)보다는 증가
 - 반도체, 석유제품 호조, 반면 자동차,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부진 지속

■ 고유가, 환율하락 등으로 높은 증가율 지속

- 수입(통관기준)은 상반기 19.4% 증가한 데 이어 7~8월 중에도 20.7% 증가
 - 자본재수입과 소비재수입은 각각 국내투자 부진, 소비증가세 둔화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하락

■ 상반기(4.3억 달러) 적자에 이어 7월에도 2.1억 달러 적자

-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되고 서비스적자가 확대된 데 기인

2. 물가

■ 소비자물가, 8월 2.9% 상승

- 8월 중 폭염과 장마로 농축수산물에 큰 폭으로 상승한 데 기인
 - 또한 집세, 공공 및 개인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는 등 유가 상승에 따른 생산자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고 있음

■ 생산자물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오름세 점차 확대

- 생산자물가: 1.5%('05년 4Q) → 1.7%('06년 1Q) → 2.4%(2Q) → 2.8%(7월)

3. 노동시장

■ 고용지표의 악화

- 금년 7월 전체 취업자는 전년동월비 26.3만 명 증가하여 지난해 7월(43.4만 명)에 비해 크게 부족
 - 더욱이 금년 7월에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13.2%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0.5% 감소하여 고용의 질도 악화

■ 실업률은 안정적,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 추세

- 7월 실업률은 작년 7월에 비해 0.3%p 하락한 3.4%
- 그러나 7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454만 명으로 전년동월비 1.5% 증가

4. 금융시장

■ 시장금리, 7월 중순 이후 하락세

- 6월 중 콜금리 목표 인상 등으로 상승하던 금리가 7월 이후 경기둔화, 미 국채수익률 하락, 외국인 국채 선물 순매수 등으로 하락세로 반전

■ 주가지수는 7월 중순 이후 회복세

- 글로벌 증시 약세, 외국인의 순매도 지속 및 국내 경기상승세 둔화조짐 등으로 급락세를 보였던 코스피지수는 7월 중순 이후 미국의 정책금리 동결 기대 확산,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전환 등에 힘입어 반등

5. 외환시장

■ 원달러 환율은 하반기 들어 950~960원 전후에서 등락

- 미국 정책금리 인상 중단 등 달러약세(원화강세) 요인과 국내 경기둔화, 경상수지 적자, 외국인 증시자금의 이탈 등 원화약세 요인이 외환시장에 동시에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박스권 내에서 등락

■ 올 2사분기 이후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유출 크게 증가

- 미국, 유로지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 기조 속에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확대되고 내국인의 해외투자도 활발해진 데 기인

6. 해외경제

■ 미국경제 성장세 둔화, 물가상승

- 실질GDP성장률, 1사분기 5.6%에서 2사분기에는 2.5%로 둔화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4분기 1.2%에 이어 7월에도 0.4% 상승

■ 일본 경기회복세 둔화

- 2사분기 성장률은 0.8%(전기대비 연율)로 1사분기 2.7%에 비해 크게 하락
 - 하지만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꾸준한 회복세

■ EU 경제, 회복세 확대

- 올 2사분기 성장률 상승, 실업률 하락 등
 - 전분기 대비 0.9%로 2001년 1사분기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
 - 2사분기 실업률은 7.9%로 지난해 평균(8.6%)에 비해 약 0.7%p 하락

■ 중국경제, 상반기 고성장세 지속했으나 하반기 들어 소폭 둔화

- 고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경기과열 우려 증대
 - 2분기 성장률은 11.3%, 고정자산투자 증가율(1~6월 누적기준)은 31.3%
- 하반기 들어서는 경기가 소폭 둔화
 - 1~7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30.5%)이 1~6월(31.3%)에 비해 0.8%p 하락
 - 7월 산업생산 증가율도 2사분기(18.0%)에 비해 둔화된 16.7%

■ 국제유가, 7월까지 상승하다 8월 들어서는 소폭 조정

-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휴전, 미성장둔화 우려 등으로 소폭 하락
 - 두바이유는 8월 18일 기준 67.55달러로 7월에 비해 하락
 - CRB선물가격지수도 8월 18일 332.32로 7월에 비해 하락

7. 경기에 대한 종합 판단

■ 경기정점이 이미 지나갔거나 진행 중인 상황

- 최근 수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고 당초 기대에 비해 내수회복세가 미흡하여, 경제주체들이 경기회복을 제대로 체감하지도 못한 채, 경기정점이 이미 지나갔거나 진행 중인 상황

II. 2006~2007년 경제전망

1. 대내외 여건

■ 고유가 지속, 글로벌 금리 인상 등으로 주요국 성장세 소폭 둔화

- 미국경제: 2년간 지속된 금리 인상의 효과, 고유가, 주택경기 하강 등 영향
- 일본경제: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성장세 둔화의 영향
- 유로지역 경제: 내수부문이 여전히 취약한데다 글로벌 성장세 둔화의 영향
- 중국경제: 일련의 경기진정책의 영향

〈표 1〉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

	2005년	2006년	2007년	
			IMF	OECD
세계성장률	4.8	4.9	4.7	2.5
미국	3.5	3.4	3.3	3.2
일본	2.7	2.8	2.1	1.5
유로지역	1.3	2.0	1.9	1.9
중국	9.9	9.5	9.0	

주: 2005~2006년은 IMF통계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 2006.

OECD, *OECD Economic Outlook*, May 2006.

■ 두바이유 유가를 기준으로 배럴당 70달러 내외의 고유가 지속 전망

- 원유수요는 둔화되겠으나 지정학적 위험 등 공급불안 요인 지속
 - 미국, 중국 등 거대 원유수요국가들의 성장세 둔화 → 원유수요 둔화
 - 이란 핵문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긴장, 빈번한 테러 등 중동지역의 불안, 나이 지리아 정정 불안, 허리케인 발생 우려 등 → 원유공급 불안

■ 대내여건

- 고용불안 및 소비심리 악화 지속
 - 부동산 규제 지속으로 건설경기 부진,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 복수노조, 비정규직 보호조치 강화 등이 고용개선에 부정적 효과
- 대선 등으로 대내여건의 불확실성 확대
 - 확장적 재정정책 등과 같은 경기 활성화 정책의 적극적 추진 난항 전망
 - 대중영합적 공약이나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

2. 국내경제전망

■ 경제성장

- 성장률: 2006년 하반기 3.9%, 연간 4.7%, 2007년 연간 4.1%
 - 고유가로 인한 기업 및 가계비용 상승, 통화정책 긴축 등으로 내수의 회복세가 지속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경제 둔화 및 중국경제 긴축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등
- 민간소비: 2006년 하반기 3.8%, 연간 4.2%, 2007년 연간 3.8%
 - 고유가 지속, 주택보유자 세 부담 증가 그리고 고용증가세 둔화 등으로 악화된 소비심리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
- 설비(무형고정자산 포함)투자: 2006년 하반기 5.6%, 연간 6.3%, 2007년 연간 5.1%
 -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기업투자환경의 개선 미흡
- 건설투자: 2006년 하반기 0.1%, 연간 -0.8%, 2007년 연간 0.9%
 -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건설투자 부진 지속

■물가

- 소비자물가: 2006년 하반기 2.7%, 연간 2.5%, 2007년 연간 2.7%
 - 그동안 누적된 디플레이션 갭으로 인한 수요측면에서의 하락요인보다 고유가 등 공급측면 가격상승 요인이 더 커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예상되는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년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은 올해 보다 높아질 전망

■대외부문

- 상품수출(국제수지 기준): 2006년 하반기 13.9%, 연간 13.9%, 2007년 연간 8.6%
 - 고유가,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른 주요 교역국의 경기둔화 등의 영향
- 상품수입(국제수지 기준): 2006년 하반기 18.5%, 연간 19.2%, 2007년 연간 10.2%
 - 내수회복세 약화, 수출증가세 둔화, 완만한 원화절상 등의 영향
- 경상수지: 2006년 하반기 24억 달러 흑자, 연간 20억 달러 흑자, 2007년 연간 22억 달러 적자
 -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입증가율, 서비스수지 적자확대 추세 지속 등

■금리와 환율

- 회사채수익률(3년 만기, AA-): 2006년 하반기 5.1%, 연간 5.2%, 2007년 연간 5.0%

〈표 2〉 2006~2007년 국내경제전망

(전년동기비 %, 억 달러)

	2005	2006					2007
	연간	1/4	2/4	3/4	4/4	연간	연간
GDP	4.0	6.1	5.3	4.5	3.3	4.7	4.1
(SA, 전기비 연율%)		4.9	3.3	2.7	2.8		
민간소비	3.2	4.8	4.4	3.9	3.7	4.2	3.8
건설투자	0.4	1.2	-4.0	1.3	-1.1	-0.8	0.9
설비+무형고정자산	4.9	6.7	7.4	5.8	5.3	6.3	5.1
소비자물가	2.8	2.3	2.4	2.5	2.9	2.5	2.7
경상수지(억 달러)	165.6	-11.2	6.9	1.0	23.0	19.7	-22.4
상품수지(억 달러)	334.7	52.2	74.1	53.0	65.0	244.4	216.6
수출(억 달러, BOP 기준)	2,890.0	758.0	821.3	835.0	877.0	3,291.3	3,574.3
증가율%	12.1	11.4	16.3	15.4	12.5	13.9	8.6
수입(억 달러, BOP 기준)	2,555.2	705.8	747.1	782.0	812.0	3,046.9	3,357.7
증가율%	16.4	19.8	20.5	20.7	16.2	19.2	10.2
서비스 및 기타수지	-169.1	-63.4	-67.2	-52.0	-42.0	-224.6	-239.0
환율(원/달러, 평균)	1024	976	949	958	950	958	934
회사채수익률(3년, AA-)	4.7	5.4	5.2	5.1	5.1	5.2	5.0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분기모형

-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단기적인 등락은 있겠지만 경기둔화와 함께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으로 투자심리 개선이 미흡할 것으로 보여 시장금리는 완만한 하락세
- 원화환율: 2006년 하반기 953원, 연간 958원, 2007년 연간 930원대
 - 미국 금리 인상이 거의 종결된 가운데 일본과 유럽 등 주요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위안화의 절상 등이 예상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 하락
 - 그러나 경상수지가 흑자폭 감소 내지는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원달러환율의 하락경직성으로 작용

Ⅲ.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1.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부진 현황 및 원인

- 2001~2005년 연평균 실질 설비투자(국민계정) 증가율이 1.2%에 머물고 취업자 증가율은 1%대의 저조한 수준에 그치는 등 투자와 고용부진이 지속
- 이는 경제구조의 변화의 탓도 있겠으나 투자 및 고용확대를 어렵게 하는 제도 및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
 - 각종 규제나 제도
 -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강성노조
 - 국내투자유인 미흡 등
- 따라서 투자 및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요망
 -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제 개편
 - 출자총액제한, 수도권 규제 등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의 완화 및 폐지

2.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높은 고용비용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고용회피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됨
 - OECD는 고용보호법제의 강도로 평가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을수록 고용률은 낮은 것으로 분석(OECD, Employment Outlook 2004 참조)
-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고용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의미
 - 2003년 63.2%인 우리나라의 고용률(15~64세 기준)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일본수준(68.4%)으로 높인다면 고용은 약 170만 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

3.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제 개편

- 성장잠재력 확충과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 시급
 - 세계 각국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자본유출을 막고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더욱이 향후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5% 이하로 전망되고 있어 법인세 인하를 통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 법인세 인하는 자본수익률을 증가시켜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인세가 1%p 인하되면 실질GDP는 0.11~0.18%, 투자는 0.13~2.1%, 소비는 0.09% 증가
-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소득세제 개편
 -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표양성화율을 높이는 한편 면세점을 인하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세베이스를 확대. 이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제도의 기본 목표와 부합
 - 과표양성화율과 과세베이스의 확대로 증가하는 세수는 소득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 소득세 1%p 인하 시 GDP는 약 0.235%, 고용은 0.079~0.14% 그리고 투자는 0.17~3.03% 증가

4. 규제완화

- 출자총액제한 폐지
 - 출자의 목적은 신규사업 진출 또는 기존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에 있는데, 출자총액제한 규제는 이와 같은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활동을 제약
 - 출자는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하나의 방법이므로, 계열사로부터의 출자가 증가할 수록 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음
 - 김현중 · 이인권(2005)¹⁾은 1987~2003년 동안의 기업집단의 상장 · 비상장 계열

1) 김현중 · 이인권, 「계열사 출자 및 실물투자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경제연구』, 제15권 제2호, 2005년 12월호, pp.87-118.

사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계열사로부터의 출자가 증가할수록 설비투자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 고동수·조현승·박민수(2006)²⁾는 1987~2003년 동안의 출자총액제한규제 대상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출자와 투자의 실증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출자비율과 투자율간에 정(正)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발표

—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

- 수도권 규제로 인구분산을 추진하려는 정책은 효과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규제의 부작용을 유발
- 수도권 규제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비수도권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경쟁국으로 투자하도록 작용
- 박헌수 외(2004)³⁾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7조6,919억원의 부가가치 증대 및 GDP 2.7% 추가성장이 기대된다고 예측한 바 있음

2) 고동수·조현승·박민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투자의 관계」, 산업연구원, 2006. 8.

3) 박헌수 외, 「수도권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 수도권 규제가 기업이 생산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위탁연구 2004-02, 2004. 11.

제 I 장

최근 경제동향

1. 실물경제
2. 물가 및 임금
3. 노동시장
4. 금융시장
5. 외환시장
6. 해외경제
7. 경기에 대한 종합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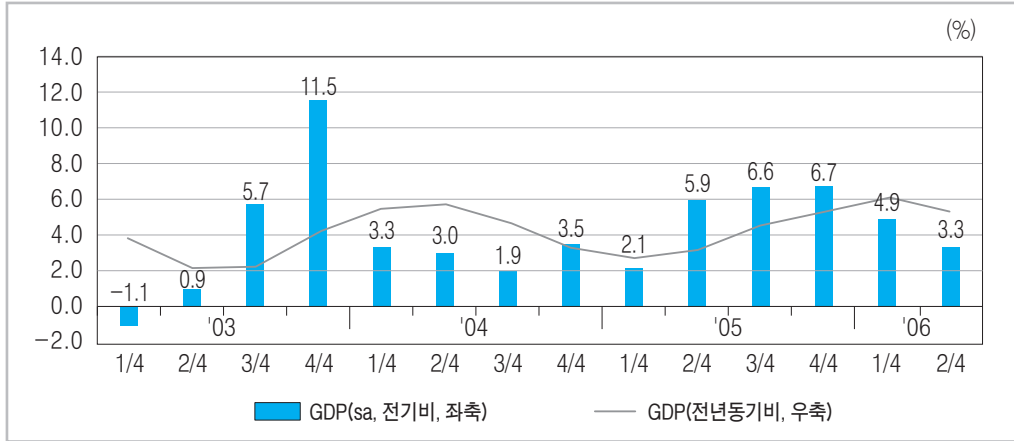
1. 실물경제

(1) 국내총생산

■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계절조정, 전기비 연율), 2분기 연속 둔화

- 2사분기 실질GDP 증가율은 3.3%를 기록, 1사분기(4.9%)보다 둔화
 - 전기비 연율: 6.7%('05년 4Q) → 4.9%('06년 1Q) → 3.3%(2Q)
- 수출호조에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둔화되고 건설투자가 급감했기 때문
 - 수출(실질, 원화기준)증가율은 2사분기 중 21.2%를 기록, 지난해 4사분기 이후 빠른 오름세를 보임
 - 반면 민간소비 증가율이 1사분기 5.2%에서 2사분기에는 3.5%로 둔화되었으며 건설투자는 2사분기 14.7% 감소
- 내수부문에 의한 성장기여도가 다시 하락하고 수출 기여도는 큰 폭 상승
 - 건설투자의 기여도는 -2.3%p로 민간소비(1.7%p)와 설비투자(1.3%p)의 기여도를 거의 상쇄함으로써 전체 내수의 기여도(0.5%p)는 1사분기(2.8%p)보다 하락
 - 수출(실질, 원화표시)의 기여도는 1사분기 7.4%p에서 2사분기에는 11.9%p로 크게 상승

<그림 1-1> 국내총생산 증가율 추이



<표 1-1> 지출항목별 증가율

(계절조정, 전기비 연율 %)

	2005년				2006년	
	1/4	2/4	3/4	4/4	1/4	2/4
민간소비	1.9	5.8	4.1	4.6	5.2	3.5
건설투자	1.8	7.4	-3.3	0.0	2.3	-14.7
설비투자	9.6	9.9	3.2	17.8	-1.6	11.7
수출(재화와 서비스)	8.6	5.0	23.1	5.2	13.4	21.2
수입(재화와 서비스)	-8.7	19.1	16.7	-3.6	19.5	22.3

〈표 1-2〉 지출항목별 기여도

(계절조정, 전기비 연율 %p)

	2005년				2006년	
	1/4	2/4	3/4	4/4	1/4	2/4
내수	2.2	5.2	1.8	4.1	2.8	0.5
민간소비	1.0	2.9	2.1	2.3	2.6	1.7
건설투자	0.3	1.2	-0.6	0.0	0.4	-2.3
설비투자	1.0	1.1	0.4	1.9	-0.2	1.3
수출(재화와 서비스)	4.5	2.7	12.3	2.9	7.4	11.9
순수출	12.5	-4.2	5.2	5.4	-1.1	1.6

(2) 생산

■ 제조업 생산호조, 하반기 들어 주춤

- 제조업 생산은 올 2사분기 중 11.4% 증가해 지난해 4분기 이후 연속 3분기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7월에는 4.7%로 증가세 둔화
 - 반도체, 영상, 음향통신 업종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정보통신업종을 대표하는 ICT제조업지수도 지난해 4분기 이후 20%대의 증가세를 지속
 - 그러나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자동차 생산이 파업 등의 영향으로 7월 중 28.9% 감소
 - 경공업 부문은 7월 중 감소세로 반전
-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2사분기 중 80.5%로 지난해 4분기 이후 80%대를 지속했으나 7월 중에는 76.9%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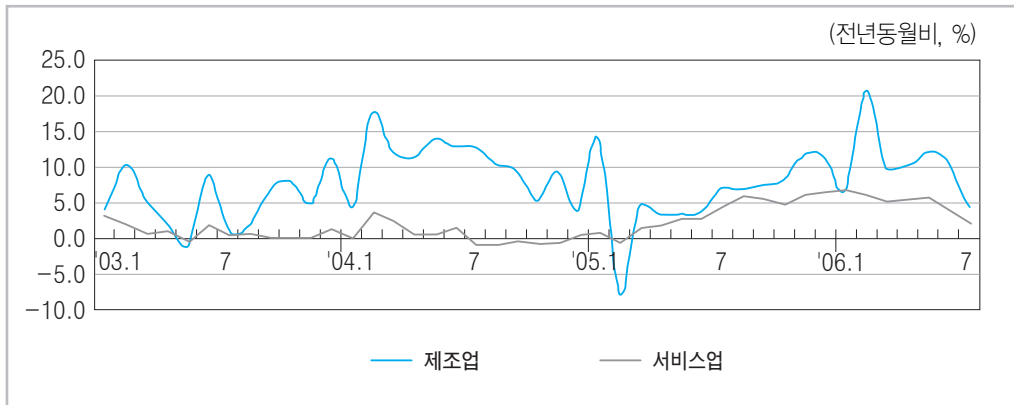
■ 서비스업 활동 상승세 둔화

- 서비스업 활동 증가율은 1사분기 6.1%, 2사분기 5.3%, 7월 2.1%로 둔화
 - 월별로는 1월(6.9%)을 고점으로 하락세 지속

— 업종별로는

- 도소매업과 통신업은 여전히 낮은 증가율 지속
- 올 1사분기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이던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증가세 둔화
- 지난해 4사분기 이후 회복조짐을 보이던 숙박 및 음식점업도 다시 부진

<그림 1-2> 생산증가율 추이



〈표 1-3〉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전년동기비, %)

	2005년					2006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제조업 전체	3.3	3.4	7.3	10.4	6.2	12.6	11.4	4.7
중공업	5.6	4.9	9.4	13.1	8.4	14.7	14.0	6.5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4.9	-6.6	-11.7	-11.7	-8.6	-17.3	-9.5	-4.0
반도체, 영상, 음향, 통신	13.3	9.4	23.8	32.3	20.1	32.4	32.1	25.6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7	11.1	2.6	8.8	8.4	15.4	8.4	-28.9
경공업	-6.3	-2.9	-1.1	-1.0	-2.8	3.3	0.1	-3.6
ICT지수	10.9	7.7	20.1	27.7	16.9	27.4	28.2	22.8
평균가동률	79.6	79.4	79.9	80.2	79.8	82.0	80.5	76.9
서비스업 전체	0.7	2.5	5.4	5.8	3.6	6.1	5.3	2.1
도소매업	-1.3	2.3	3.2	3.4	1.9	3.3	3.7	0.9
숙박 및 음식점업	-1.2	-0.6	-0.1	3.0	0.3	3.9	2.4	0.1
운수업	3.1	3.4	4.8	5.4	4.2	6.4	6.3	4.3
통신업	4.7	4.2	2.7	4.7	4.1	2.3	2.9	2.2
금융 및 보험업	0.4	1.8	13.6	13.9	7.3	13.2	9.3	2.5
부동산 및 임대업	6.6	7.9	10.0	9.2	8.5	10.5	8.4	4.3
사업서비스업	1.8	1.5	2.7	4.7	2.7	5.6	6.2	4.7
교육 서비스업	-0.4	0.0	3.1	-0.1	0.7	1.4	2.3	0.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5	8.0	9.1	9.4	7.3	11.2	7.6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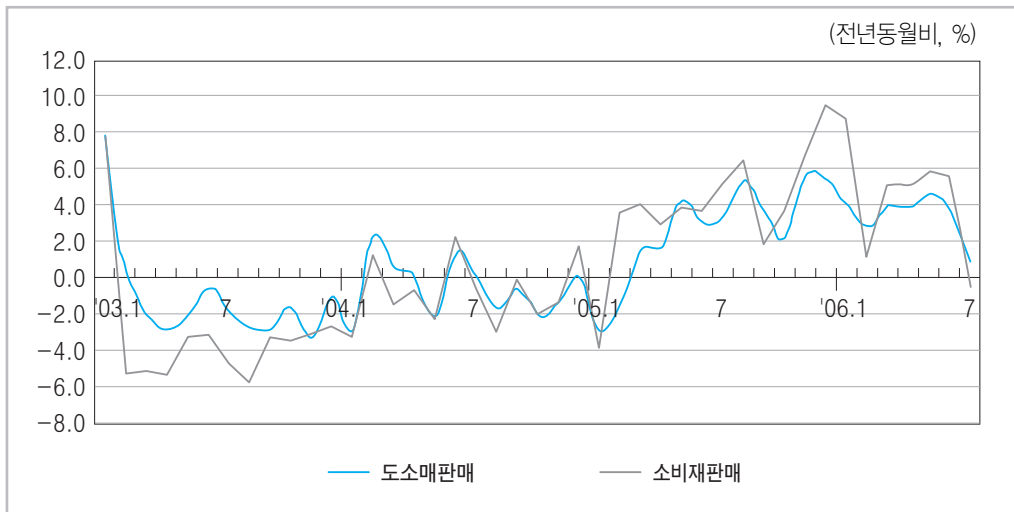
(3) 소비

■ 소비증가세 둔화

- 2사분기 소비증가율이 1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상반기 전체로 볼 때,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둔화된 모습이고 7월에는 거의 정체 수준
 - 도소매판매: 4.3%('05년 하반기) → 3.8%('06년 상반기) → 0.7%(7월)

- 소비재판매: 5.6%('05년 하반기) → 5.2%('06년 상반기) → -0.5%(7월)
- 소매업태별로는 보면, 무점포판매의 증가세가 유지된 반면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기타소매점(재래시장 포함)의 부진은 확대

<그림 1-3> 소비증가율 추이



<표 1-4> 소비

(전년동기비, %)

	2005년					2006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도소매판매	-0.8	3.0	4.0	4.5	2.7	3.6	4.0	0.7
소비재판매	1.2	3.4	4.4	6.8	3.9	5.0	5.4	-0.5
백화점	-1.3	0.8	3.9	8.2	3.0	7.9	5.6	2.0
대형할인점	6.7	7.7	7.2	11.6	8.3	6.3	9.0	7.3
무점포판매	10.8	9.8	13.2	21.9	14.1	18.6	17.3	19.1
기타소매점(재래시장 포함)	-0.8	1.2	-1.0	0.1	-0.1	-3.0	-0.3	-1.2

(4)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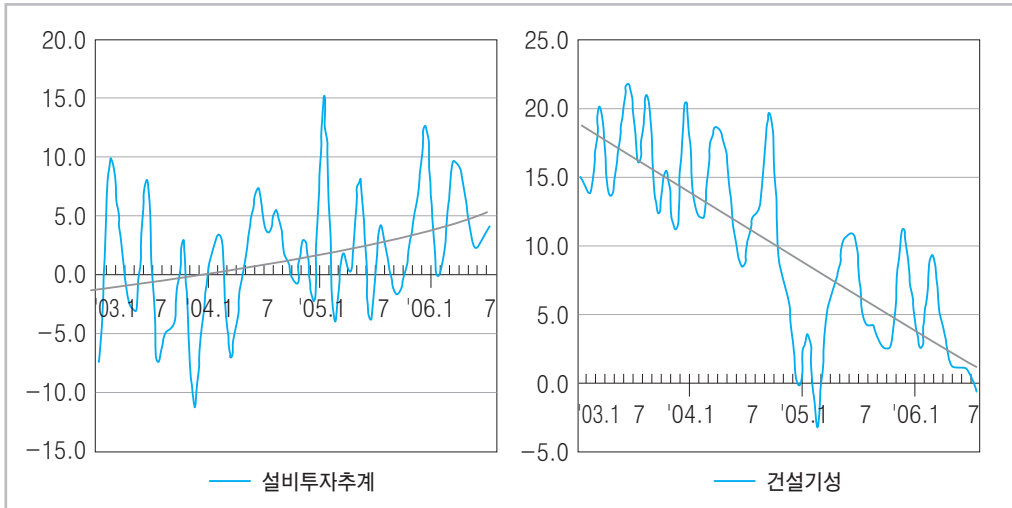
■ 설비투자 회복세 소폭 둔화

- 지난해 4사분기에 7.0% 증가했던 설비투자가 올 1사분기 4.6%, 2사분기 4.3% 그리고 7월에는 4.2% 증가에 그치는 등 회복세가 둔화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지난해 3분기 이후 연속 4분기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지속
 - 올 1사분기 큰 폭 하락했던 공공부문의 발주도 2사분기에는 증가세로 돌아서고 민간부문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
 - 그러나 7월 중에는 공공부문의 발주도 다시 크게 감소(-68.2%)하면서 전체 국내기계수주가 감소세(-2.7%)를 보임

■ 건설투자 증가세 크게 둔화

- 건설기성액 증가율의 둔화 지속, 7월 중에는 장마로 인한 공사지연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 6.9%('05년 4Q) → 5.9%('06년 1Q) → 1.3%('06년 2Q) → -0.7%(7월)
-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금액 크게 감소했으나 7월 중에는 소폭 반등
 - 건설수주는 올 1사분기 9.7% 감소한 데 이어 2사분기 중에도 14.1% 감소 7월에는 7.3% 증가
 - 2사분기까지는 민간부문, 공공부문, 민자에 관계없이 건설수주 감소
 - 7월 중에는 민간부문의 주택, 창고, 공장 등의 발주가 증가

<그림 1-4> 투자증가율 추이



<표 1-5> 투자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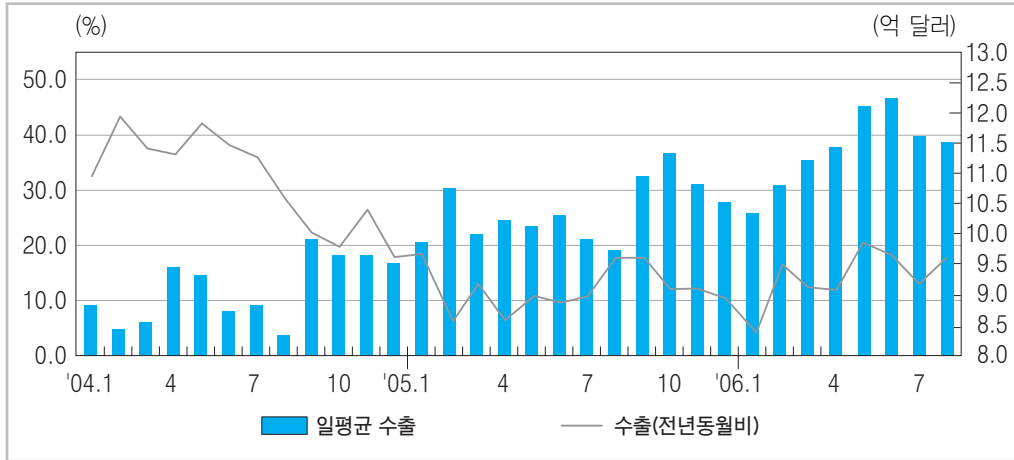
	2005년					2006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설비투자추계(불변)	3.9	1.5	1.0	7.0	3.3	4.6	4.3	4.2
국내기계수주(경상)	-6.9	-12.2	14.0	17.5	1.5	11.2	20.9	-2.7
공공	7.8	-51.3	38.9	17.1	-3.1	-57.9	43.3	-68.2
민간	-8.4	-7.1	11.7	17.6	2.0	19.9	19.3	5.9
제조업	-10.3	-6.5	2.7	1.4	-3.8	30.0	26.6	11.0
비제조업	-6.6	-7.6	20.3	35.2	7.7	10.5	12.0	1.6
건설기성액(경상)	1.9	9.6	3.8	6.9	5.7	5.9	1.3	-0.7
건설수주(경상)	22.3	38.5	15.8	-17.9	9.5	-9.7	-14.1	7.3
공공부문	22.2	73.7	0.0	-26.3	1.6	-11.3	-28.3	-11.2
민간부문	18.3	30.9	29.1	-5.8	16.2	-6.0	-5.6	11.5
민자	151.8	9.3	-84.1	-71.0	-36.3	-64.6	-71.4	-7.1

(5) 수출

■ 수출호조세 지속

- 7~8월 수출증가율은 15.4%로 2사분기(16.9%)에 비해 소폭 둔화되었지만 상반기(13.8%)보다는 증가
 - 일평균 수출금액도 11.6억 달러를 기록, 상반기(11.3억 달러)보다 상승
- 품목별 수출
 - 반도체는 수출비중이 높은 D램의 가격안정, 플래시메모리 수요증가 등으로 상반기 15.1%에 이어 7~8월 중에도 두 자릿수 증가율
 - 자동차는 원고에 따른 경쟁력 약화, 현대차 수사 등으로 2사분기 7.6%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7~8월에는 현대차 파업 등의 영향으로 30%대 감소
 - 석유제품은 고유가에 따른 단가 상승, 수요증가에 힘입은 물량확대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
 - 무선통신기기는 3세대 이동통신(WCDMA)시장의 성장지연 및 원고 등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부진
 - 컴퓨터는 저가분야 가격경쟁력 열세 및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감소세 지속
- 지역별 수출
 - 對ASEAN 수출은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반도체, 등 부품소재 수출증가로 증가율이 확대
 - 對일본 수출은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상반기보다 빠른 증가세
 - 對중국 수출은 일반기계와 반도체, 對미국 수출은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의 감소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비해 크게 둔화
 - 對EU 수출은 자동차, 휴대폰 등의 부진으로 감소세로 반전

<그림 1-5> 최근 수출 추이



<표 1-6> 품목별 수출

(전년동기비, %)

	2005년					2006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1~20일
수출전체	12.7	9.0	15.4	11.4	12.0	10.6	16.9	12.0	10.0
반도체	20.1	7.7	16.5	9.0	13.1	14.0	16.3	12.4	11.3
자동차	30.2	18.8	-1.6	1.2	11.0	10.7	7.6	-30.6	-35.2
무선통신기기	13.1	1.9	1.9	3.4	4.9	1.5	-1.9	3.4	-7.6
컴퓨터	-25.6	-26.5	-8.7	-6.3	-17.6	-3.9	-15.4	-11.3	-19.1
선박	11.7	5.3	25.4	14.0	13.2	-1.6	49.0	51.6	-20.5
석유제품	30.9	46.9	77.1	44.5	50.6	34.8	54.3	64.1	62.2

〈표 1-7〉 지역별 수출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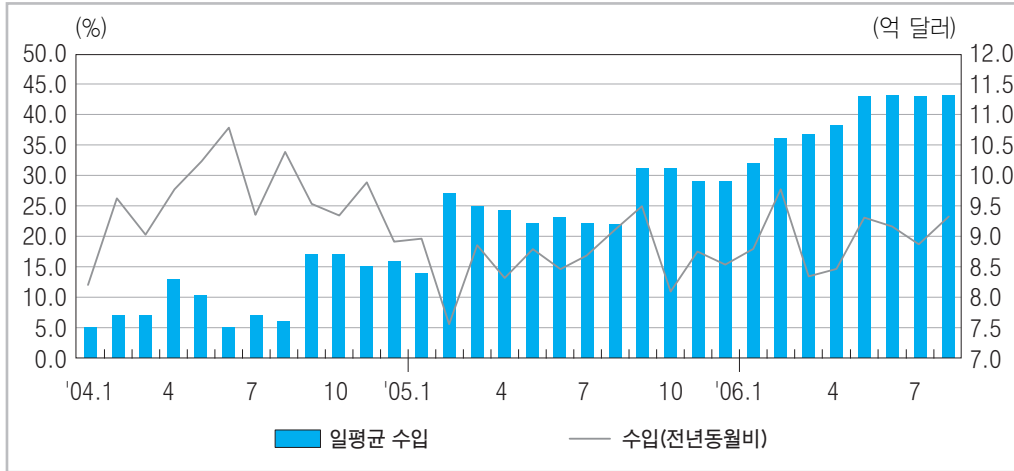
	2005년					2006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1~20일
중국	23.6	23.5	27.9	22.6	24.4	12.6	11.4	5.9	14.7
일본	9.5	12.6	14.0	7.3	10.7	11.6	9.5	13.7	19.7
미국	10.7	-12.7	-6.0	-3.8	-3.5	0.1	10.9	-4.4	-0.2
ASEAN	10.0	14.0	25.0	8.0	14.2	10.3	14.2	12.8	26.5
EU	19.9	12.2	18.9	11.8	15.4	7.4	16.2	10.7	-11.0

(6) 수입

■ 고유가, 환율하락 등으로 높은 증가율 지속

- 수입(통관기준)은 상반기 19.4% 증가한 데 이어 7~8월 중에도 20.7% 증가
 - 일평균 수입금액 상승: 상반기 10.8억 달러 → 7~8월 11.3억 달러
- 용도별로는 상반기에 비해 증가세가 모두 둔화
 - 자본재수입과 소비재수입은 각각 국내투자 부진, 소비증가세 둔화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원자재수입 증가율은 고유가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낙폭을 보임

〈그림 1-6〉 최근 수입 추이



〈표 1-8〉 용도별 수입

(전년동기비, %)

	2005년					2006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1~20일
수입총액	14.8	15.2	21.1	14.6	16.4	19.0	19.8	18.2	11.0
원자재	19.4	21.0	28.4	15.6	20.9	23.5	23.8	24.0	17.5
자본재	11.3	9.3	13.4	12.9	11.7	11.9	11.8	9.6	3.2
소비재	8.7	12.6	16.2	15.2	13.3	19.2	21.5	17.3	7.3

(7) 경상수지

■ 상반기(4.3억 달러)에 이어 7월에도 2.1억 달러 적자

- 2사분기 흑자(6.9억 달러)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4.3억 달러 적자를 보였던 경상수지가 7월에도 약 2.1억 달러 적자를 보임
- 2사분기 흑자규모는 전년동기(26.0억 달러)에 비해 19.1억 달러 감소한 것이며 지난해 7월은 14.5억 달러 흑자였음

-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소되고 서비스적자가 확대된 데 기인
 - 상품수지는 흑자규모는 2사분기 74.1억 달러로 전년동기(86.4억 달러)에 비해서는 약 12.3억 달러 축소되었으며 7월(18억 달러)은 작년 7월(31.7억 달러)에 비해 13.7억 달러 악화
 - 서비스수지 적자는 2사분기 38.8억 달러, 7월 17.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확대

〈표 1-9〉 최근 경상수지

(억 달러)

	2005년					2006년		
	2/4	7월	3/4	4/4	연간	1/4	2/4	7월
경상수지	26.0	14.5	26.5	54.3	165.6	-11.2	6.9	-2.1
상품수지	86.4	31.7	75.8	80.9	334.7	52.2	74.1	18.0
서비스수지	-32.4	-14.7	-43.6	-24.9	-130.9	-50.0	-38.8	-17.4
운수수지	9.2	2.1	7.3	11.0	39.2	3.0	5.8	1.8
여행수지	-24.9	-10.1	-29.2	-22.2	-96.5	-29.5	-28.4	-12.4
금융서비스	3.0	1.0	3.8	4.4	14.3	4.4	5.6	1.4
특허권등사용료수지	-5.4	-1.3	-7.0	-3.4	-25.7	-8.1	-5.6	-2.1
사업서비스수지	-13.7	-6.6	-19.5	-14.5	-61.5	-15.1	-15.1	-5.5
소득수지	-20.9	-0.7	0.3	5.0	-13.2	-4.8	-16.5	0.4
경상이전수지	-7.1	-1.9	-6.0	-6.7	-25.0	-8.1	-11.9	-3.1

2. 물가 및 임금

■ 소비자물가 상승률, 8월 들어 상승 조짐

- 올 2사분기(2.3%)에 이어 7월(2.3%) 중에도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가 8월 중에는 2.9% 증가
- 집세, 공공 및 개인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8월 중 폭염과 장마로 농축수산물에 큰 폭으로 상승한 데 기인
 - 농축수산물: 0.5(1Q) → -2.4%(2Q) → -2.8%(7월) → 2.3%(8월)
-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의 증가율은 상승
 - 1.6%('06년 1Q) → 1.9%(2Q) → 2.2%(7~8월)

■ 생산자물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오름세 점차 확대

- 생산자물가: 1.5%('05년 4Q) → 1.7%('06년 1Q) → 2.4%(2Q) → 2.8%(7월)
→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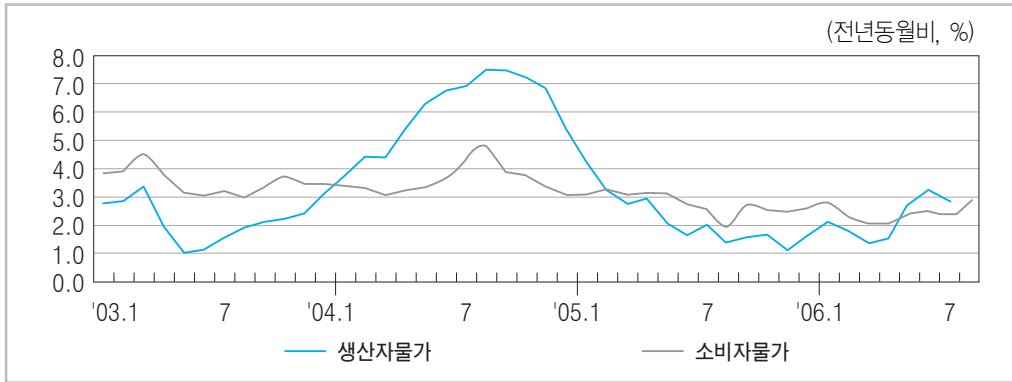
■ 수입물가, 지난 분기에 비해 상승폭 확대

- 수입물가(계약통화 기준)는 2사분기 중 16.2% 상승(1사분기 14.7%)
 - 원화기준 수입물가지수는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한 자릿수 증가율

■ 가공단계별로는 원자재 및 중간재가 가격상승을 주도

- 원자재의 가격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간재의 오름세도 확대

〈그림 1-7〉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표 1-10〉 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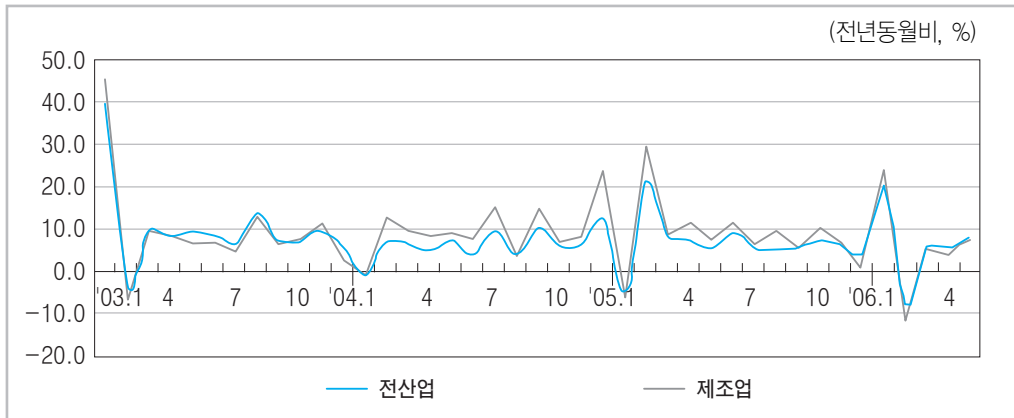
(전년동기비, %)

	2005년					2006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소비자물가	3.1	3.0	2.4	2.5	2.8	2.4	2.3	2.3	2.9	
상품	3.4	3.6	2.8	3.1	3.2	2.4	1.6	1.4	2.7	
농축수산물	3.7	3.5	-0.2	0.6	1.9	0.5	-2.4	-2.8	2.3	
공업제품	3.3	3.7	3.9	3.9	3.7	3.1	3.1	2.8	2.8	
서비스	2.9	2.4	2.1	2.0	2.4	2.4	3.0	3.1	3.1	
집세	0.2	-0.3	-0.5	-0.3	-0.2	-0.2	0.3	0.5	0.6	
공공서비스	4.3	3.3	2.9	2.2	3.2	3.0	4.1	4.3	4.4	
개인서비스	3.5	3.2	2.9	3.0	3.2	3.3	3.6	3.6	3.6	
근원인플레이션	3.0	2.5	2.0	1.9	2.3	1.6	1.9	2.2	2.2	
생산자물가	3.3	2.2	1.7	1.5	2.2	1.7	2.4	2.8		
수입물가	원화기준	0.1	0.9	4.2	6.2	2.9	8.1	8.8	7.8	
	계약기준	14.3	15.9	17.1	13.7	15.2	14.7	16.2	17.8	
	달러기준	14.8	16.3	17.0	12.2	15.0	13.0	15.4	17.7	
가공단계별	원재료	12.2	15.7	20.7	22.8	18.0	22.4	19.0	15.3	
	중간재	3.2	0.6	0.1	-0.2	0.9	1.6	3.5	4.8	
	최종재	0.1	0.1	0.2	0.9	0.3	0.3	0.5	0.3	

■ 2사분기 임금상승률, 1사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

- 지난해 3사분기 이후 5%대에 그치던 임금상승률이 올 2사분기(4~5월 기준)에는 6%대로 소폭 상승
-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11.4%), 부동산 및 임대업(10.3%), 건설업(9.1%), 도매 및 소매업(8.1%)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7.2%) 등이 전체 증가율을 상회

<그림 1-8>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10인 이상 사업체)



〈표 1-11〉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10인 이상 사업체)

(전년동기비, %)

	2004년	2005년				2006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5월
전산업	6.5	7.4	7.4	5.3	5.7	6.4	5.5	6.5
제조업	10.0	9.9	9.9	7.1	4.9	7.8	4.9	5.9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5.3	4.5	12.0	10.3	2.6	7.2	1.6	7.2
건설업	2.7	1.6	1.9	-1.4	1.7	1.0	6.9	9.1
도매 및 소매업	4.0	9.6	12.6	9.0	16.0	11.8	6.3	8.1
숙박 및 음식점업	4.6	8.2	4.3	6.6	3.4	5.6	3.5	3.0
운수업	5.2	7.3	8.8	9.9	9.5	8.9	4.3	4.7
금융 및 보험업	7.4	8.1	4.8	0.6	9.4	5.7	12.1	11.4
부동산 및 임대업	2.7	9.8	10.2	7.3	10.5	9.4	11.8	10.3
단위노동비용(제조업)	-0.9	4.6	3.9	0.3	-3.8	2.9	-5.5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5월 이후 부동산의 가격상승폭은 크게 둔화

- 세부담 증가에 이은 금리 인상 등의 이유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장마철 비수기가 겹쳐져 매매가격 상승률은 안정세
 -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강남지역이 강북지역에 비해 상승률이 더 크게 둔화

〈표 1-12〉 전국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2005년		2006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국	0.0	0.2	0.3	0.5	0.6	0.9	1.0	0.5	0.2	0.2
서울 강북(14개구)	0.1	0.1	0.2	0.3	0.5	0.7	0.7	0.6	0.4	0.3
서울 강남(11개구)	0.3	0.7	1.0	1.2	1.8	2.3	2.2	0.8	0.3	0.2

자료: 국민은행

3. 노동시장

■ 고용지표의 부진으로 향후 가시적인 내수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워

- 금년 일자리 창출이 매우 부진해서 향후 가시적인 내수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금년 7월 전체 취업자가 전년동월 대비 26.3만 명 증가하여 지난해 7월(43.4만 명)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해마다 새로 유입되는 40~50만 명의 노동인구를 충분히 흡수하기에는 매우 부족
 - 더욱이 금년 7월에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13.2% 증가한 반면에,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0.5% 감소하여 취업시간대별 고용의 질이 매우 나쁜 상황
 - 올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인 35만 명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다행스럽게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고용안정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표 1-13〉 취업자 추이

(천 명, 전년동기 대비, %)

	2004년	2005년				2006년		
	연간	연간	7월	1/4분기	2/4분기	5월	6월	7월
취업자수	22,557	22,856	23,184	22,577	23,409	23,484	23,501	23,447
증감차	418	299	434	331	283	286	255	263
36시간 미만	6.4	8.7	-8.6	-5.7	4.5	3.5	3.7	13.2
36시간 이상	1.2	0.3	3.9	2.9	1.0	1.1	0.9	-0.5
비임금근로자	-0.9	0.1	1.6	-0.4	-0.6	-0.6	-0.8	-1.1
상용근로자	4.9	3.8	4.2	3.2	2.8	2.7	2.5	3.0
임시·일용근로자	1.9	0.0	-0.1	1.6	1.5	1.6	1.5	1.5

자료: 통계청

■ 실업률은 안정적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 추세

- 실업률은 안정적이지만 취업여건이 기대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금년 7월 중 실업자는 82.3만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7.3% 감소하였고 실업률도 작년 7월에 비해 0.3%p 하락한 3.4% 시현
 - 7월 청년(15~29세)실업률도 작년 7월에 비해 0.3%p 낮은 8.0%를 기록하여 안정적
 - 그러나 최근 취업여건이 기대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아 7월 구직단념자가 6월에 비해 2천 명 늘어나고 있고, 7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454.4만 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5% 증가하고 있는 상황

〈표 1 -14〉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천 명, 전년동기 대비, %)

	2004년	2005년				2006년		
	연간	연간	7월	1/4분기	2/4분기	5월	6월	7월
실업자	860	887	888	915	816	783	819	823
실업률	3.7	3.7	3.7	3.9	3.4	3.2	3.4	3.4
<15~29세>실업률	8.3	8.0	8.3	8.4	7.7	7.1	8.0	8.0
계절조정실업률	3.7	3.7	3.8	3.5	3.5	3.4	3.5	3.5
비경제활동인구	14,300	14,557	14,331	15,101	14,505	14,463	14,455	14,544
구직단념자	100	125	141	127	114	105	122	124

자료: 통계청

4. 금융시장

(1) 통화지표

- 광의 통화(M2), 7% 중반을 넘어서는 증가율을 기록하다 7월 들어서 증가율이 전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추정
- 5월 이후 7%대에서 상승세가 지속된 M2증가율은 7월 들어서 전월보다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
 - 민간신용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국외 부문의 통화환수폭이 증가한 데 기인
- 지난해 11월 이후 법인MMF가 제외된 새 M1은 7월 중 법인MMF 익일입금제가 시행되면서 감소폭이 더 커져 4% 내외의 감소한 것으로 추정

〈표 1-15〉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 대비, %, 평잔기준)

	2005년					2006년				
	1/4	2/4	3/4	4/4	연중	1/4	2/4	5월	6월	7월
Lf ¹⁾	6.7	6.8	7.3	7.1	7.0	7.2	7.4	7.6	7.3	7 내외
M2 ²⁾	6.5	7.1	7.4	6.7	6.9	7.0	7.2	7.1	7.7	7 초반
M1 ²⁾³⁾	8.1	9.9	13.5	2.6	8.5	-0.6	-2.8	-2.3	-3.0	-4 내외
본원통화	1.5	2.5	6.1	6.2	4.1	7.2	7.9	7.4	7.6	10.2

주: 1) 광의유동성(L)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M3가 Lf(금융기관 유동성)로 개칭되어 유동성지표로 활용

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 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 미만 예수금

3)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예금(법인MMF 익일환매제도 도입에 따라 2005년 11월 이후 법인MMF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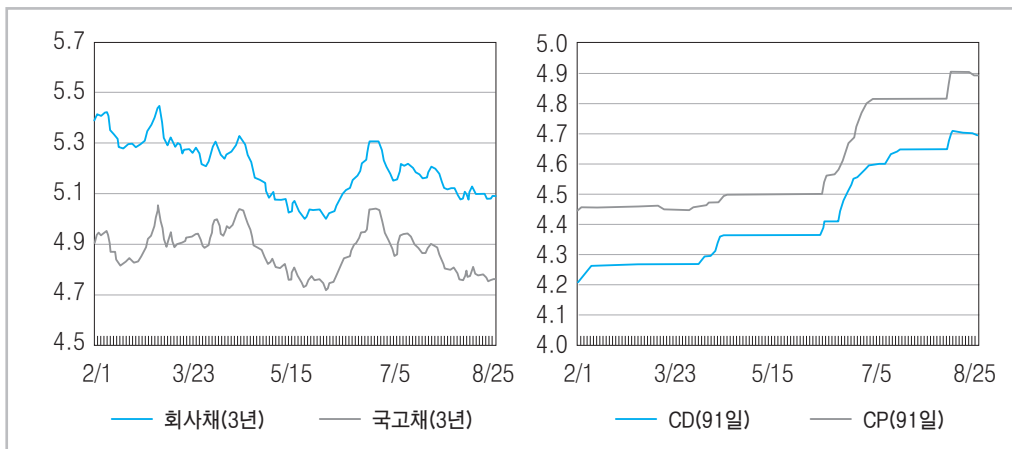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2) 금리

■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던 시장금리, 7월 중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 작년 연말 이후부터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던 시장금리는 6월 중 콜금리 목표 인상 및 추가 인상 기대, 미 국채수익률 상승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다가 7월 이후 경기상승세 둔화, 미 국채수익률 하락, 외국인 국채 선물 순매수 등으로 하락세로 반전
 - 4.7%대로 하락했던 국고채는 5.0%대로 상승했다가 4.8%대로 하락, 5.0%로 하락했던 회사채는 5.3%대로 상승한 후 5.1%대로 하락
- 단기금리는 4월 이후 상승하여 6월부터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으며, 8월 중 콜금리 목표 인상의 영향으로 CD는 4.7%대, CP는 4.9%대까지 상승

〈그림 1-9〉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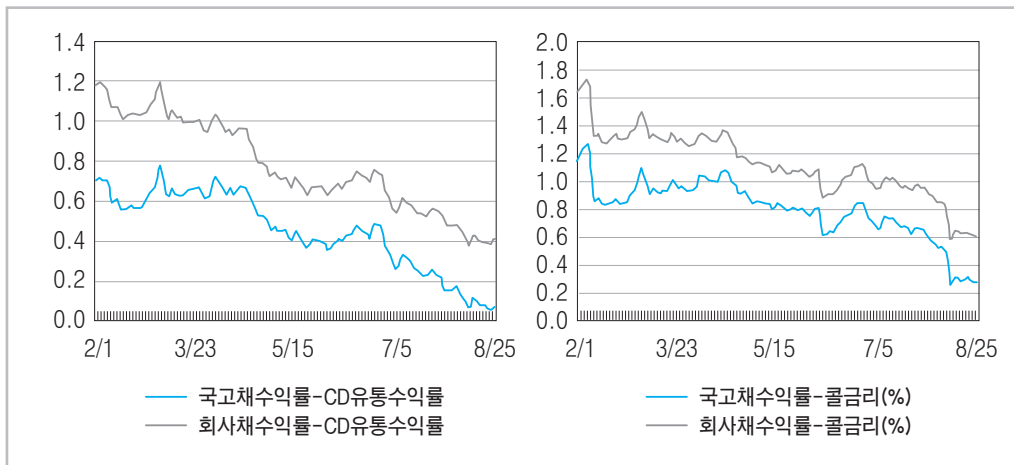
■ 장단기 금리차 및 신용스프레드 축소

- 장기시장금리(3년물 채권) 하락과 단기금리의 상승, 그리고 경기회복 부진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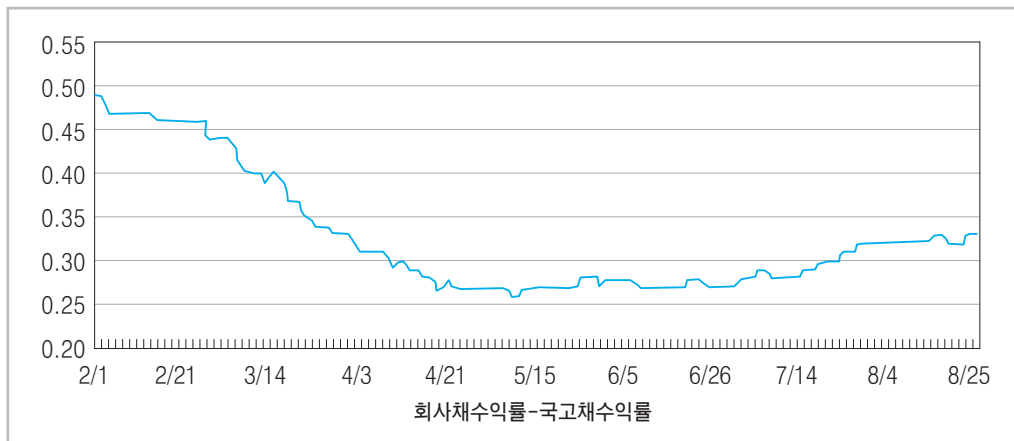
우려로 인해 장단기 금리차는 4월 이후 크게 축소되다가 6월에 장기금리의 상승으로 일시 다시 확대되기도 했으나 7월 이후 축소가 지속

- 연초부터 회사채수익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함에 따라 신용스프레드는 축소세를 유지하다가 7월말 이후 소폭 상승

〈그림 1-10〉 장단기 금리차 추이



〈그림 1-11〉 신용스프레드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I -16〉 주요 금리 현황

(연리, %, 말일기준)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12월	3월	6월	9월	12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5일
콜금리(1일물)(A)	3.27	3.25	3.27	3.25	3.70	3.97	3.96	4.17	4.21	4.49
CD유통수익률(91일)	3.39	3.55	3.51	3.70	4.04	4.33	4.36	4.47	4.63	4.69
CP유통수익률(91일)	3.53	3.73	3.64	3.82	4.26	4.48	4.50	4.63	4.81	4.89
국고채(3년)(B)	3.28	4.04	3.79	4.52	5.06	4.95	4.78	4.89	4.89	4.75
회사채(3년, AA-)(C)	3.73	4.48	4.18	4.92	5.49	5.24	5.05	5.17	5.18	5.08
B-A(%P)	0.01	0.79	0.52	1.27	1.36	0.98	0.82	0.72	0.68	0.26
C-A(%P)	0.46	1.23	0.91	1.67	1.79	1.27	1.09	1.00	0.97	0.59
C-B(%P)	0.45	0.44	0.39	0.40	0.43	0.29	0.27	0.28	0.29	0.33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 평균금리 및 대출평균금리 상승

- '06년 6월 현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 평균금리는 4.48%로 전월에 비해 0.13% 상승
 - 은행의 특판예금 취급 증가 등으로 순수저축성 예금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단기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도 상승
- 6월 중 대출평균금리는 5.98%로 전월에 비해 0.09% 포인트 상승하였는데 이는 콜금리 목표 인상으로 CD유통수익률이 오르면서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 기인
 - 공공·기타대출 금리는 일부 공기업에 대한 저금리대출 제공 등으로 하락

〈표 1-17〉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추이

(연%, %p)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2월	12월	12월	4월	5월	6월	월중증감
저축성수신 평균금리 ¹⁾	4.12	3.41	4.14	4.37	4.35	4.48	0.13
순수저축성예금	4.10	3.43	4.05	4.32	4.31	4.37	0.06
시장형금융상품	4.16	3.35	4.27	4.43	4.39	4.61	0.22
대출평균금리 ²⁾	6.20	5.52	5.74	5.83	5.89	5.98	0.09
기업대출	6.18	5.54	5.80	5.92	5.99	6.09	0.10
(대기업)	6.07	5.28	5.24	5.38	5.32	5.56	0.24
(중소기업)	6.21	5.62	5.92	6.04	6.12	6.21	0.09
가계대출	6.31	5.48	5.63	5.62	5.64	5.72	0.08
공공·기타대출	5.73	4.78	5.01	5.79	5.59	5.24	-0.35

주: 1) 예금은행 수신상품 중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을 제외

2) 당좌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제외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3) 기업 및 가계의 자금조달

■은행의 기업대출(원화)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증가폭은 축소

- 대기업대출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대출은 증가세를 유지
 - 최근 대기업은 대출은 2월 이후 연속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은행의 대출확대 경쟁완화 등으로 증가폭은 감소
- 7월 들어 주식발행과 회사채 발행이 크게 감소하여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은 저조
 - 7월 들어 주식발행은 전월에 비해 48%나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가지수의 소폭 반등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와 기업공개가 감소한 데 기인

- 회사채는 일반회사채, 금융채, ABS 등의 발행이 크게 감소한데다 장기자금수요 저조 등으로 5월 이후 순상환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CP는 7월 중 토지보상비 지급을 위한 일부 공기업의 발행 등으로 순상환으로 전환

〈표 1-18〉 기업자금조달 추이

(조원, 기간 중 말잔 증감)

	2005년		2006년					2006년
	1~7월 중	7월	1~7월 중	4월	5월	6월	7월	7월말 잔액
은행원화대출 ¹⁾	10.3	3.7	22.5	4.8	3.5	3.0	2.0	297.8
(대기업)	1.3	1.1	-1.7	-0.2	-0.5	-0.08	-0.5	27.0
(중소기업)	9.1	2.6	24.2	5.0	4.0	3.1	2.5	270.8
은행사모사채인수 ²⁾	1.5	0.5	9.8	0.6	2.0	3.2	0.8	24.2
회사채순발행 ³⁾	1.3	0.2	-1.6	0.08	-0.08	-0.81	-0.6	-
CP순발행 ⁴⁾	1.6	1.2	3.1	1.1	0.3	-0.6	1.8	15.7
주식발행	1.6	0.5	3.2	0.1	0.4	0.8	0.3	-

주: 1) 은행신탁포함, 산업은행 제외

2) 국내은행 원화사모사채(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제외)

3) 일반기업이 발행한 공모회사채(ABS 제외, P-CBO 포함) 기준

4) 증권사 및 증권사 취급분 기준, 3월 25일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표 1-19〉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억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1~7월	전년동기대비	2006년	2006년	2006년	2006년	전월대비
					4월	5월	6월	7월	
조달총액	586,569	548,664	264,673	△23.3	36,306	43,774	45,438	31,387	△30.9
주 식	82,787	67,633	39,719	△1.5	1,523	4,288	9,675	5,032	△48.0
회사채	503,782	481,031	224,954	△26.2	34,783	39,486	35,763	26,355	△26.3
(일 반)	262,066	221,552	90,615	△36.8	18,520	15,000	11,529	8,696	△24.6
(금융채)	79,814	91,250	56,000	△4.2	7,600	8,900	8,600	4,900	△43.0
(A B S)	161,902	168,229	78,339	△23.8	8,663	15,586	15,634	12,759	△18.4

주: 1)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공모), 납입일 기준

2) 금융채(여전채, 종금채, 증권회사 발행 회사채 등)는 2001년 7월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자료: 금융감독원,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은행의 가계대출은 증가폭이 둔화

- 이사, 결혼 등 계절적 수요와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로 인해 은행의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증가폭은 둔화
 - 주택담보대출은 금융당국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의 영향으로 6월 이후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나, 금감원의 대출규제로 억제되었던 대출실행이 이월됨에 따라 7월 중 전월과 비슷한 증가폭 기록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5월 이후 민간소비 회복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7월 들어 미증했는데 이는 장마 및 휴가비 지급 등에 기인

〈표 1-20〉 은행의 가계대출

(조원, 기간 중 말잔 증감)

	2005년		2006년					2006년 7월말잔액
	1~7월	7월	1~7월	4월	5월	6월	7월	
가계대출 ¹⁾	16.7	2.4	20.1	3.6	4.6	4.3	2.5	324.9
(주택담보대출 ²⁾)	12.0	2.1	12.8	3.2	3.1	2.2	2.3	203.3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5.0	0.3	7.2	0.5	1.4	2.2	0.0	120.1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4) 자금흐름 동향

■ 올 들어 증가세가 유지되던 금융기관 수신고는 7월 들어 감소세로 반전

- 금융기관으로의 자금유입은 8.31부동산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 예금상품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7월 들어 전월에 비해 감소
 - 7월말 주요 금융기관 수신고는 전월 대비 3.8조원 감소하여 913.6조원을 기록
- 은행은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낸 반면 자산운용사, 증권, 종금 등 타 금융권은 수신고가 증가
 - 7월 중 은행의 수신은 고금리 특판 종료로 정기예금 증가폭이 축소된 데다 전월 MMF 환매에 따른 반사효과로 일시 급증했던 MMDA의 일부 자금이 이탈하고 부가세 납부로 결제성예금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전월보다 감소
 - 익일매수제 등의 영향으로 MMF 수신고가 7월초까지 대규모 환매되어 감소하고 채권형 펀드도 부가세 납부 등으로 감소했으나, 적립식펀드 선호에 따라 주식형펀드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주가연동형 파생상품펀드 중심의 신종 펀드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힘입어 자산운용사 수신고는 증가세로 반전
 - 추가조정 영향으로 고객예탁금이 감소한 반면 MMF의 대체금융상품인 RP 수신고의 증가로 증권사의 수신고는 증가

- 종금사의 발행어음은 감소한 반면 CMA와 CP는 증가하여 종금사의 수신고는 전월보다 0.7조원 증가

〈표 1-21〉 금융기관 수신고

(조원)

구 분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말	2006년				
				4월말	5월말	6월말	7월말	7월 증감
은행 ¹⁾	600.1	594.5	626.8	625.2	631.4	646.4	638.7	△7.7
자산운용사 ²⁾	145.0	187.0	204.3	224.0	234.0	222.3	222.7	0.4
증권	14.5	13.3	19.8	22.2	19.7	21.7	24.5	2.8
종금 ³⁾	16.2	17.3	23.2	26.3	25.5	27.0	27.7	0.7
합계	775.8	812.1	874.1	897.7	910.6	917.4	913.6	△3.8

주: 1) 은행은 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 CD순발행 및 신탁계정 합계

2) 자산운용사는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취급분 기준

3) 종금은 2개 전업사(금호, 한불)와 은행 및 증권사의 종금계정 포함

자료: 산업은행, 시중자금 동향

〈표 1-22〉 은행 및 비은행권 수신

(조원, 기간 중 말잔 증감)

	2004년	2005년	2006년						
	연중	연중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7월말 잔액
은행수신 ¹⁾	-0.6	36.0	6.3	2.3	2.1	6.2	10.9	-7.2	616.1
(실세요구불예금)	2.0	8.4	0.8	-1.6	2.4	0.1	2.8	-2.1	54.1
(수시입출식)	-7.3	22.0	1.1	-1.3	0.5	1.1	8.3	-5.5	165.0
- MMDA	-7.8	13.0	2.7	-1.6	-1.7	0.5	10.4	-4.0	65.5
(정기예금)	-0.4	-8.0	1.8	1.5	1.4	3.2	2.5	1.2	257.2
- 6개월 미만	-8.7	1.9	1.1	0.3	0.0	1.3	-0.3	-	-
- 1년 이상	14.7	-6.2	1.4	0.4	2.2	2.1	3.4	-	-
(단기시장성)	4.8	20.2	3.4	4.0	-1.5	2.4	-2.1	-0.5	88.8
- C D	9.3	16.4	1.5	4.0	-1.5	2.4	-2.1	-1.9	55.8
[금융채]	12.4	8.2	3.1	4.3	3.9	2.3	3.4	4.4	100.9
자산운용사 수신 ²⁾	45.2	13.0	6.2	6.9	1.3	9.9	-11.7	0.3	222.7
(MMF)	17.7	5.0	3.8	3.1	-1.3	4.7	-17.2	-2.6	56.3
(주식형)	-0.9	16.7	1.0	1.5	-0.1	3.1	2.2	1.3	41.3
(채권형)	21.9	-23.8	0.0	0.6	0.1	-0.9	1.8	-0.6	49.3
(혼합형)	-1.4	3.9	0.9	-0.5	0.8	1.8	1.0	0.7	33.1
(신종펀드)	7.8	11.2	0.5	2.2	1.9	1.2	0.4	1.5	16.2
증권사 수신	-1.2	-6.5	-0.9	-1.0	2.4	-2.5	2.0	2.8	24.5
고객예탁금	-1.4	-3.8	-1.0	-0.9	0.3	-2.5	-1.0	-0.1	9.7
RP	0.2	-2.7	0.1	-0.1	2.1	-	3.0	2.9	14.8
종금사 수신	-1.1	-5.9	0.2	-1.6	1.4	-0.8	1.5	0.7	27.7
발행어음	0.1	-1.1	-0.3	-0.6	0.0	-0.3	2.4	-0.3	10.0
CMA	-0.3	-0.9	-	-0.2	0.1	-0.1	0.4	0.2	3.3
어음매출(CP)	-0.9	-3.9	0.5	-0.8	1.3	-0.4	-1.3	0.8	14.4

주: 1) 은행채 제외

2) 투자신탁+투자회사 기준(2005년 11~12월, 2006년), 그 외(투자신탁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산업은행, 시중자금 동향

- 주요 금융기관의 단기수신은 7월 들어 전월보다 소폭 하락
 - 주요 금융기관의 단기수신이 전체 수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월말 현재 50.6%로 전월(51.5%)에 비해 0.9%p 하락

〈표 1-23〉 금융기관¹⁾의 단기수신²⁾ 비중

(%, 조원)

	2004년	2005년	2006년						
	12월	12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7월 잔액
단기물 비중	49.5	51.8	51.4	51.8	51.6	51.6	51.5	50.6	440.5
장기물 비중	50.5	48.2	48.6	48.2	48.4	48.4	48.5	49.4	43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70.7

주: 1)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 은행신탁의 수신 평균잔액 기준

2) 단기수신: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6개월 미만 정기예금, CD, MMF 등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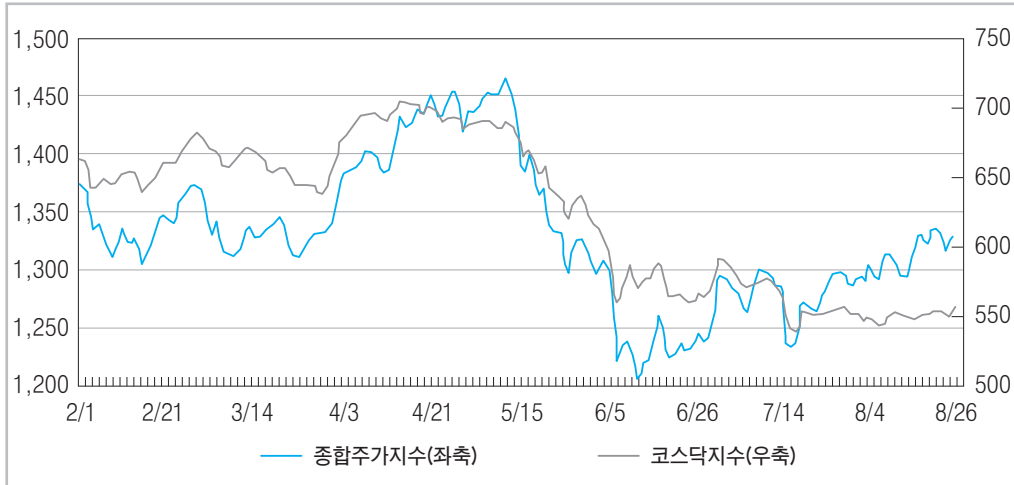
(5) 주식시장

■ 5월 중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주가지수는 큰 폭의 조정과정을 거쳐 7월 중순 이후 회복세

- 글로벌 증시 약세, 외국인의 순매도 지속 및 국내 경기상승세 둔화조짐 등으로 급락세를 보였던 코스피지수는 7월 중순 이후 미국의 정책금리 동결 기대 확산, 외국인인 선물 순매수 전환 등에 힘입어 반등
 - 콜금리의 전격적인 인상에 따른 국내금리 불확실성 해소와 외국인의 대형기술주에 대한 강한 매수세도 주가상승의 요인
 - 외국인의 지속적인 현물시장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고객예탁금 유지(7월말 9.7조 → 8월 25일 9.7조) 및 주식형상품 수탁고의 증가, 국민연금의 현물 비중 확대 방침 등으로 수요기반이 강화되어 주가의 급격한 하향조정을 방지
 - 경기둔화 가시화, 외국인의 매도세 지속 및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가상승세에 부담으로 작용
 - 국내 경기 및 미국 금리정책방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태이며 거래대금 및 거래량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코스닥지수는 5월 이후 큰 폭의 조정과정을 거쳐 7월 하순 이후 55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코스피지수와는 달리 회복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그림 1-12〉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1-24〉 주식시장 주요지표

(조원, %, 말일기준)

	2004년	2005년	200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5일
종합주가지수(KOSPI)	895.9	1,379.4	1,399.8	1,371.5	1,359.6	1,419.7	1441.0	1,295.2	1,297.8	1,329.4
거래대금(평균)	2.2	3.2	5.8	4.4	3.4	4.1	4.1	3.0	2.6	2.5
시가총액	412.59	655.07	666.03	666.37	662.9	693.2	703.7	633.2	636.3	652.4
연월중 외국인순매수	+10.48	-3.02	+2.14	-0.53	+0.19	+0.47	-0.40	-2.67	-1.58	-2.3
코스닥지수(KOSDAQ)	380.33	701.79	690.24	682.36	665.21	685.44	689.89	590.68	557.66	556.41
거래대금(평균)	0.63	1.8	2.8	2.2	1.9	2.0	1.6	1.2	1.1	1.3
시가총액	31.1	70.9	71.0	70.7	69.8	72.3	72.8	63.8	58.1	62.2
연월중 외국인순매수	+0.165	0.64	+0.059	+0.102	-0.052	+0.028	-0.021	-0.11	-0.14	-0.26
고객예탁금	8.1	11.9	13.1	12.0	11.2	13.3	12.7	9.8	9.7	9.7

자료: 재정경제부, 주요 금융통계

5. 외환시장

(1) 원화환율

■ 원달러 환율은 하반기 들어 950~960원 전후에서 등락

- 미국 정책금리 인상 중단 등 달러약세(원화강세) 요인과 국내 경기둔화, 경상수지 적자, 외국인 증시자금의 이탈 등 원화약세 요인이 외환시장에 동시에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박스권 내에서 등락
 - 미국 FRB는 8월8일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를 5.25%로 동결했으며, 한국의 상반기 경상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반기별로는 처음으로 적자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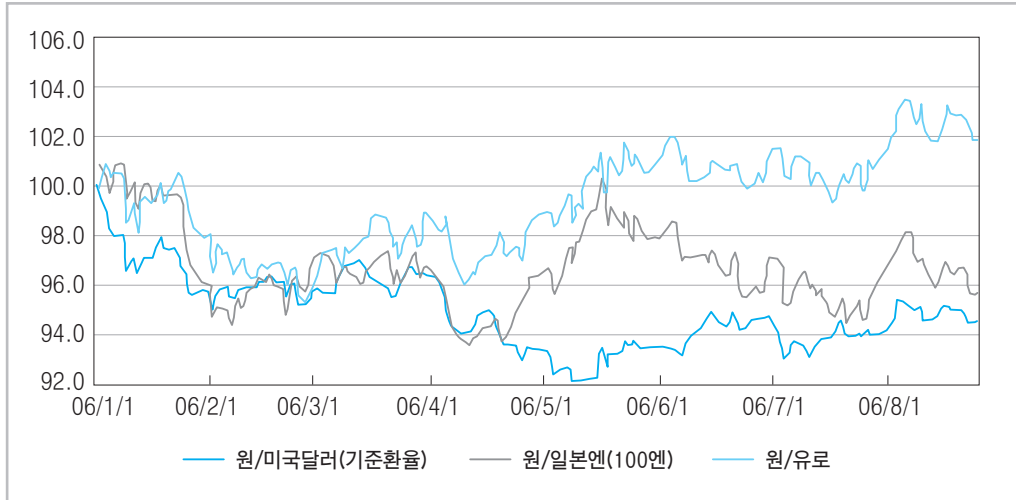
〈표 1-25〉 원/달러 환율

	2005년	2005년	2006년				
	연평균	연평균	4월	5월	6월	7월	8월 1~24일
원/달러 환율	1,144.7	1,024.3	954.4	941.4	955.2	950.2	960.7
(전년평균 대비, %)	-4.0	-10.5	-6.8	-8.1	-6.8	-7.2	-6.2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원화는 엔화에 대해서는 100엔당 825원 전후로 등락, 유로화에 대해서는 4월 중순 이후 약세 지속
 - 유로화의 경우, 유럽지역의 경기회복세와 ECB의 금리 인상으로 강세
 - ECB는 지난해 12월 이후 4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2.25%(2005. 12. 1) → 2.50%(2006. 3. 2) → 2.75%(2006. 6. 8) → 3.00%(2006. 8. 3))
 - 일본의 경우는 8.11 통화정책회의에서 콜금리를 0.25%로 동결

<그림 1-13> 주요 통화 대비 원화환율 추이(2005. 12. 31=10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 자본 유출입 현황

■ 올 2사분기 이후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유출 크게 증가

- 미국, 유로지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 기조 속에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확대되고 내국인의 해외투자도 활발해진 데 기인
 - 외국인 투자자금은 4~7월 중 76.9억 달러, 내국인 투자자금은 101.5억 달러가 유출
 - 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4~7월 중 25억 달러 증가

〈표 1 -26〉 자본 유출입 추이

(억 달러)

	2004년	2005년				2006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직접투자수지	45.9	-6.8	11.8	-4.1	-0.7	0.3	-13.1	7.8	-1.1
해외직접투자	-46.6	-11.2	-10.7	-11.2	-9.9	-43.1	-14.4	-14.5	-3.8
외국인직접투자	92.5	4.4	22.6	7.2	9.2	43.4	1.3	22.3	2.7
포트폴리오투자수지	86.2	-13.3	-23.8	1.8	22.1	-13.2	14.4	-141.8	-36.7
내국인투자	-74.0	-16.4	-27.4	-34.7	-21.6	-100.2	-55.4	-79.6	-21.9
외국인투자	160.1	3.1	3.6	36.5	43.7	87.0	69.8	-62.1	-14.8
주식	94.7	9.9	2.4	14.9	4.0	31.1	54.3	-66.4	-15.7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6. 해외경제

(1) 주요국 경제

■ 미국경제: 성장세 둔화, 물가상승

- 실질GDP성장률 둔화 등 실물지표 부진
 - 2사분기 성장률이 1사분기(5.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에 그침
 - 산업생산 증가율도 6월 0.8%에서 7월에는 0.4%로 둔화
 - 실업률도 2사분기 4.6%에서 7월에는 4.8%로 0.2%p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4분기 1.2%에 이어 7월에도 0.4% 상승
 - 전년동월비로는 5월 이후 3개월 연속 4%대 지속
- 이를 반영하여 경기선행지수가 2/4분기(-0.4%)에 이어 7월에도 0.1% 하락

〈표 1 -27〉 미국의 경제지표

(전기대비, %)

	2005년				2006년				
	연간	2/4	3/4	4/4	1/4	2/4	5월	6월	7월
실질GDP ¹⁾	3.2	3.3	4.2	1.8	5.6	2.5	-	-	-
산업생산 ²⁾	3.3	1.6	1.4	5.3	5.1	6.2	0.0	0.8	0.4
소비자물가	3.4	0.9	1.4	0.8	0.6	1.2	0.4	0.2	0.4
실업률(%)	5.1	5.1	5.0	4.9	4.7	4.6	4.6	4.6	4.8
경기선행지수 ³⁾	2.3	0.2	0.4	1.0	0.7	-0.4	-0.5	0.1	-0.1
무역수지(억 달러)	-7,828	-1,814	-1,987	-2,125	-2,081	-2,109	-710	-707	

주: 1) 전기비 연율 2) 분기수치는 전기비 연율 3) Conference Board(1985=100)

자료: 한국은행, 미연준(Federal Reserve Bulletin)

■ 일본 경기회복세 둔화

- 2사분기 성장률은 0.8%(전기대비 연율)로 1사분기 2.7%에 비해 크게 하락
 - 미국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둔화에 기인
 - 하지만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꾸준한 회복세
- 광공업 생산은 2사분기 중 4.2% 증가하여 1분기보다 확대되었으며 실업률도 2사분기 4.1%로 전분기(4.2%)에 비해 하락
- 소비자물가, 올 1월 이후 상승세로 반전 이후 상승폭 점차 확대
 - -0.5%('05년 4Q) → 0.4%('06년 1Q) → 0.7%(2Q)
 - IMF는 7월 28일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종결되었다고 선언하였으며 아베 신조 관방장관도 디플레이션의 끝이 보인다고 언급

<표 1-28> 일본의 경제지표

(전년동기 대비, %)

	2005년				2006년				
	연간	2/4	3/4	4/4	1/4	2/4	5월	6월	7월
실질GDP	2.6	2.6	2.8	3.7	3.6	2.0	-	-	-
(전기비 연율, %)	2.6	5.7	0.8	4.4	2.7	0.8	-	-	-
광공업생산	1.5	0.6	-0.2	3.0	3.2	4.2	3.9	5.0	-
소비자물가	-0.3	-0.1	-0.3	-0.5	0.4	0.7	0.6	1.0	-
실업률(%)	4.4	4.3	4.3	4.5	4.2	4.1	4.0	4.2	-
무역수지(억 달러) ¹⁾	790.3	195.2	174.3	195.7	133.1	160.7	34.3	70.5	-

주: 1) 엔화표시 무역수지를 평균환율로 환산
 자료: 한국은행, 일본은행(금융경제통계월보)

■ EU 경제, 회복세 확대

- 올 2사분기 성장률 상승, 실업률 하락, 경기체감지수 개선 등

- 올 2사분기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9%로 2001년 1사분기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
 - 실업률은 1사분기 8.1%, 그리고 2사분기에는 7.9%를 기록해 지난해 평균(8.6%)에 비해 약 0.5%p 이상 하락
 - 유로지역 경기체감지수(ESI)가 올 들어 꾸준히 상승하여 7월(107.7)에는 2001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사분기 2.5%, 7월 2.4%를 기록, ECB의 물가안정 목표(2.0%)를 크게 상회
- 7월 중 독일, 프랑스, 스페인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각각 전년동월비 2.1%, 2.2%, 4.0%

〈표 I -29〉 EU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대비, %)

	2005년				2006년				
	연간	2/4	3/4	4/4	1/4	2/4	5월	6월	7월
실질GDP	1.3	0.4	0.6	0.3	0.6	0.9	-	-	-
산업생산	1.2	0.6	1.0	0.6	1.1	1.0	1.8	-0.1	-
소비자물가 ¹⁾	2.2	2.1	2.3	2.4	2.3	2.5	2.5	2.5	2.4
실업률(%)	8.6	8.6	8.5	8.3	8.1	7.9	7.9	7.8	-
경기체감지수 ²⁾	98.2	96.1	97.8	100.2	102.7	105.7	106.7	107.1	107.7
무역수지(억 달러) ³⁾	291.3	135.0	89.5	-14.2	-152.8	-41.8	-40.9	25.3	-

주: 1) 전년동기 대비 2) 2000=100 3) 유로화표시 무역수지를 평균환율로 환산
 자료: 한국은행, European Central Bank(Monthly Bulletin)

■ 중국경제, 상반기 고성장세 지속했으나 하반기 들어 소폭 둔화

- 고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경기과열 우려 증대
 - 2분기 성장률은 11.3%, 고정자산투자(1~6월 누적기준) 증가율은 31.3%
 - 통화(M2)증가율은 1사분기 18.9%, 2분기 18.8%로 높은 증가세 지속

- 중국의 산업생산도 상반기 20%에 가까운 증가율 지속
- 하반기 들어서는 경기가 소폭 둔화
 - 1~7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30.5%)이 1~6월(31.3%)에 비해 0.8%p 하락
 - 7월 산업생산 증가율도 2사분기(18.0%)에 비해 둔화된 16.7%
 - 소비자물가 증가율도 소폭 둔화

〈표 1 -30〉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전년동기 대비, %)

	2005년				2006년				
	연간	2/4	3/4	4/4	1/4	2/4	5월	6월	7월
실질GDP	9.9	10.1	9.8	9.9	10.3	11.3	-	-	-
산업생산	16.4	16.5	16.2	16.4	19.0	18.0	17.9	19.5	16.7
소비자물가	1.8	1.7	1.3	1.4	1.2	1.4	1.4	1.5	1.0
M2	17.6	14.8	17.2	18.0	18.9	18.8	19.1	18.4	18.4
고정자산투자 ¹⁾	27.2	27.1	27.7	27.2	29.8	31.3	-	31.3	30.5
무역수지(억 달러)	1,019.0	231.0	288.0	335.0	232.0	380.0	130.0	145.0	146.0

주: 1) 누계기준

자료: 한국은행, 중국인민은행(통계계보)

(2) 원유 및 국제원자재

■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7월까지 상승세

- 이란핵문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나이지리아 정정불안, 허리케인 위협 등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세 지속
 - 3월 이후 급등하기 시작한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7월 평균 배럴당 68달러를 초과
- CRB선물지수와 금선물지수는 상승

- 중동정세 불안 지속,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징후, 중국 등 신흥경제대국 특수 등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 8월 들어서는 소폭 조정

-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휴전, 미성장둔화 우려 등으로 소폭 하락
- 두바이유는 8월 18일 기준 67.55달러로 7월에 비해 하락
- CRB선물가격지수도 8월 18일 332.32로 7월에 비해 하락

〈표 I -31〉 유가 및 CRB지수(기말기준)

(달러/배럴, 1967=100)

	2004년	2005년	2006년							
	12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18
유가현물(Dubai)	34.15	53.49	60.8	57.14	60.53	64.75	65.27	67.46	68.13	67.55
CRB선물지수 ¹⁾	283.9	347.89	359.93	353.27	361.91	379.53	379.8	385.63	391.49	332.32
금선물	438.4	531.5	574	563.9	586.7	654.5	642.5	613.5	634.2	-

주: 1) CRB선물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품목의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1967년=100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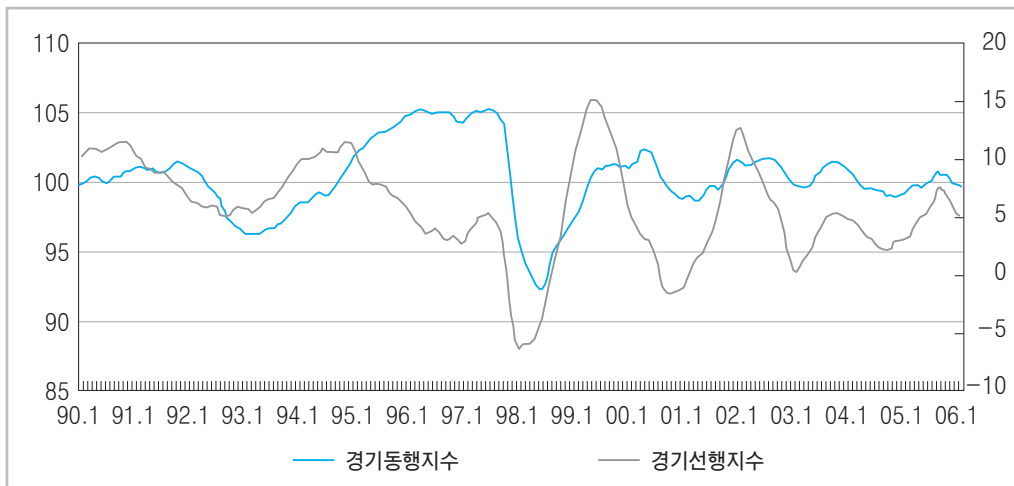
자료: 한국석유공사, 연합뉴스인포맥스

7. 경기에 대한 종합 판단

■ 경기정점이 이미 지나갔거나 진행 중인 상황

- 최근 수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고 당초 기대에 비해 내수회복세가 미흡하여, 경제주체들이 경기회복을 제대로 체감하지도 못한 채, 경기정점이 이미 지나갔거나 진행 중인 상황
 - 최근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개월째 내려가고 있고 지난 3월에 정체된 것을 고려하면 5개월째 하락 지속
 - 향후 경기국면의 변화를 예고해 주는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전월차도 금년 2월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되어 5개월 연속 하락세 시현
 - 제조업의 재고증가율은 상승하는 반면에 출하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어 제조업의 경기도 후퇴하고 있는 상황

〈그림 1-14〉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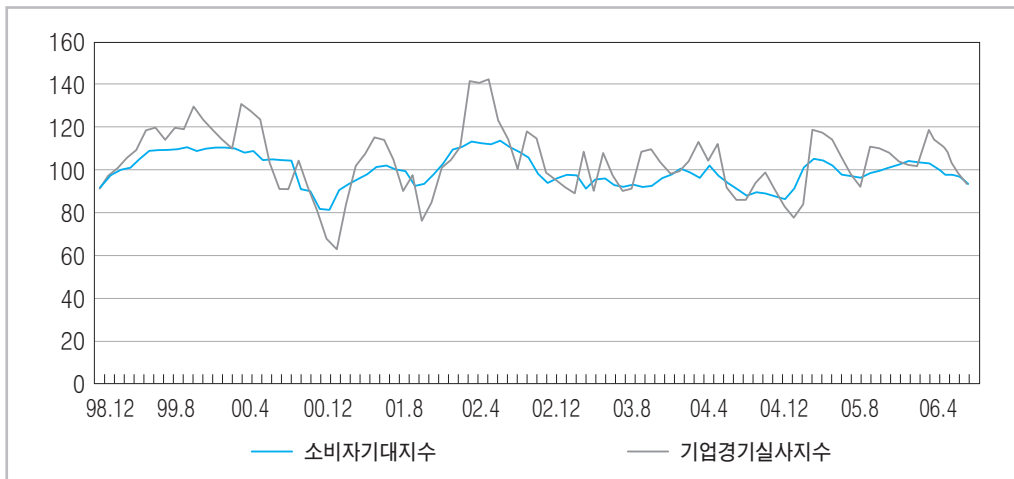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심리지표 크게 위축

- 기업과 가계, 수출과 내수 등이 분리된 경제상황과 미흡한 경기회복세로 인해 심리지표들이 크게 위축
- 7월 소비자기대지수(통계청) 94.3은 작년 1월의 92.5 이후 가장 저조하고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소득계층별로도 전 계층의 기대지수 모두가 기준치인 100 이하인 상황
-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전경련 BSI)도 93.4로 3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 이하에서 하락세 지속

〈그림 1-15〉 소비자기대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전경련

제II장

2006~2007년 경제전망

1. 대내외 여건
2. 국내경제전망

1. 대내외 여건

■ 성장률: 고유가 지속, 글로벌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세가 낮아지면서 내년 성장률은 올해에 비해 둔화될 전망

- 미국경제, 주택경기 침체發 경기둔화 가능성
 - 2년 가까이 지속된 정책금리 인상과 지속된 고유가의 여파로 주택경기 후퇴 등이 나타나며 올 하반기 이후 점진적 성장세 둔화 전망
- 중국경제, 일련의 경기진정책으로 성장세 둔화
 - 올 들어 금리 및 기준율 인상, 투자억제 조치 등 시행
 - 상반기 고성장세로 인해 향후에는 금리 인상, 대출억제, 위안화 환율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한 긴축 노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
- 일본과 유로지역경제의 회복세 다소 조정 받을 전망
 - 유로지역은 회복세에 있으나 내수부문이 여전히 취약한데다 글로벌 성장세 둔화의 영향으로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아지기는 힘들 전망
 - 일본은 미국경제 성장세 둔화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

〈표 II-1〉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

	2005년	2006년	2007년	
			IMF	OECD
세계성장률	4.8	4.9	4.7	2.5
미국	3.5	3.4	3.3	3.2
일본	2.7	2.8	2.1	1.5
유로	1.3	2.0	1.9	1.9
중국	9.9	9.5	9.0	

주: 2005~2006년은 IMF통계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 2006.

OECD, *OECD Economic Outlook*, May 2006.

■국제유가: 수요증가세는 둔화되겠으나 지정학적 위험 등 공급측면의 유가 강세요인이 지속되면서 70달러(두바이유 기준) 내외의 고유가 현상이 지속될 전망

- 수요증가세 둔화

- 미국, 중국 등 거대 원유수요국가들의 내년 성장세 둔화
- 일본, EU 등 경기회복세 조정

-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공급차질은 지속

- 이란 핵문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긴장, 빈번한 테러 등 중동지역의 불안은 원유공급의 최대 위협요인
-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의 정정 불안
- 허리케인 발생 우려 등

- 이로 인해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올 하반기 이후 배럴당 70달러 내외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

- 두바이 유가는 이미 70달러를 초과(70.5달러, 8월 2일)한 바 있으며 이후 원유시장 상황에 따라 등락

⇒ 국제유가의 상승요인이 수요요인에서 공급요인으로 전환되면서 고유가가 세계경제의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짐

■대내여건

- 고용불안 및 소비심리 악화 지속

-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건설경기 부진,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 복수노조, 비정규직 보호조치 강화 등이 고용개선에 부정적 효과

- 대선 등으로 대내여건의 불확실성 확대

- 내년 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확장적 재정정책 등과 같은 경기 활성화 정책의 적극적 추진이 정치적인 논리에 밀려 사실상 어려울 전망
- 또한 경기 부진은 일부 대선 후보들로 하여금 대중영합적 공약이나 사회분열을 조

장하는 이슈를 부각시키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런 상황은 다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음

2. 국내경제전망

■ 경제성장

- 성장률: 2006년 하반기 3.9%, 연간 4.7%, 2007년 연간 4.1%
 - 2006년 하반기에는 내수의 회복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주요 교역국들의 수요 역시 점차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성장률이 4%에 못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상반기 높은 성장률(5.7%)의 영향으로 연간 전체 성장률은 4.7%를 기록할 전망이다
 - 고유가로 인한 기업 및 가계비용 상승, 통화정책 긴축 등을 하반기 경제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경제 둔화 및 중국경제 긴축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등으로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 민간소비: 2006년 하반기 3.8%, 연간 4.2%, 2007년 연간 3.8%
 - 2006년 1사분기 이후 약해지기 시작한 소비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고유가 지속, 주택보유자 세 부담 증가 그리고 고용증가세 둔화 등으로 악화된 소비심리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2005년말~2006년초 내수회복을 주도하던 민간소비의 역할이 약해진 데에는 고용 및 소득 증가세가 둔화한 것이 근본적인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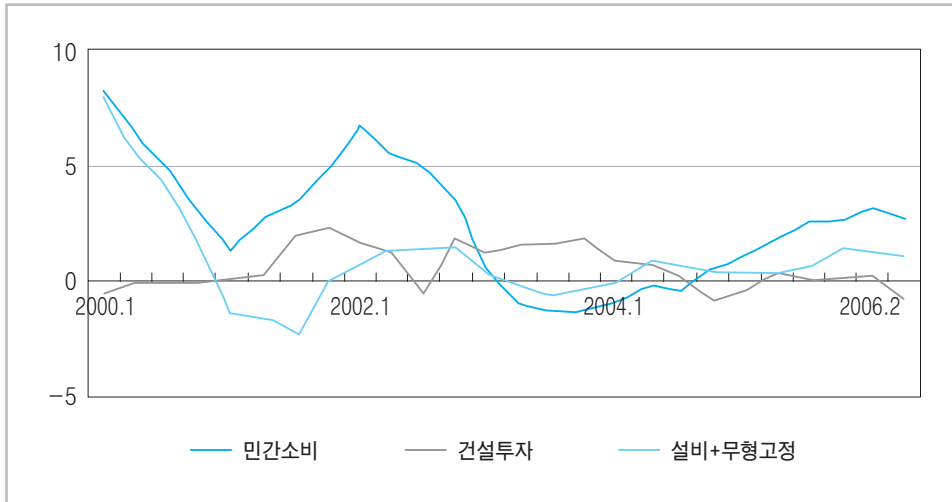
〈참고자료 1〉 부동산 관련 세 부담 증가와 소비회복세 부진

- 최근 경기둔화의 주요인은 소비회복세 부진
 - 최근 발표된 통계의 주요 특징은 지난 3년간 얼어붙었다 지난해 말 이후 시작된 내수, 특히 민간소비의 회복조짐이 다시 약해지고 있다는 것임
- 소비회복세 부진은 부동산 관련 세 부담 증가와 무관하지 않음
 - 부동산 경기 억제정책에 따른 주택시장 둔화는 부(負)의 자산효과를 가져오고 관련 세 부담 증가는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소비둔화 효과를 초래

1. 소비와 건설투자의 동반 둔화(동조화)

- 2003~2005년 중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상반된 움직임
 - 2003~2004년 기간에는 민간소비의 내수 기여도는 마이너스였지만 건설투자는 2~3%p의 꾸준한 기여도를 보임
 - 2005년에는 반대로 민간소비의 기여도가 높아지고 건설투자의 기여도는 하락
 - 건설과 민간소비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인위적 요인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엇박자 양상을 하나의 이유로 설명하기 쉽지 않음
- 하지만 올 들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동반 둔화
 - 소비증가세의 둔화와 건설의 위축이 같은 시점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최근 까지 지속되었던 두 변수 사이의 엇박자 양상에 비추어 특이

〈그림 참고-1〉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의 내수 기여도*



* 각 항목의 전년동기비 증감액을 전년동기 내수(소비+투자)로 나눈 수치

2.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 동조화의 주요 원인

■ 각종 규제와 높은 세금으로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이 동조화의 제일 유력한 원인으로 보임

- 먼저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체 건설투자 위축으로 이어짐
 - 정부의 강한 의지를 간파한 건설사들은 정책이 주효해서 일단 단기간이라도 수요가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주거 관련 공사를 크게 줄이게 됨
- 동시에 수요억제를 위한 소위 '세금폭탄'은 그나마 소비여력이 있는 주택 보유자들을 압박
 - 실제로 통계청의 소비자기대지수의 추세를 계층별 분포를 보면 올 들어 기대지수의 악화가 주택 보유자들인 40대 이상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음(〈표 참고-1〉 참조)

〈표 참고-1〉 연령대별 소비자기대지수

	연령대별 소비자기대지수								
	'05년 11월	12월	'06.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20대	109.6	110.1	110.4	111.1	106.4	109.0	109.6	110.4	105.8
30대	103.5	107.1	107.1	107.8	108.0	106.8	102.2	101.4	97.4
40대	102.1	102.0	105.0	102.9	103.7	98.3	97.0	96.9	94.8
50대	98.8	101.4	101.4	100.8	99.2	97.8	94.8	93.1	91.1
60대 이상	97.1	96.9	101.2	100.8	99.2	95.6	94.0	93.0	88.3
전 체	101.5	103.0	104.5	103.8	103.4	100.6	98.0	97.4	94.3

- 아울러 소득별로 보면 5월 이후에는 월 소득 2백만원 이상 계층에서도 나타나기 시작. 이 시점은 부동산 관련 세금인상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한 때임 (〈표 참고-2〉 참조)
- 구체적으로 4월 27일 전국 주택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6.4% 높게 발표되었고, 특히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6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30.5%에 달했음
- 특히 새로운 공시지가에 준하여 종부세가 6월에 부과되었던 것과 월 소득 4백만원 이상 계층의 기대지수 악화 시점이 비슷한 것도 우연한 일치로 보기 어려움

〈표 참고-2〉 소득계층별 소비자기대지수

월평균소득 (만원)	소득계층별 소비자기대지수								
	'05.11월	12월	'06.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400 이상	106.4	110.9	111.6	111.3	106.9	106.5	103.3	102.8	98.7
300~399	105.1	107.5	107.9	106.3	107.5	104.1	99.4	100.7	97.3
200~299	102.2	104.4	105.8	105.2	104.5	101.5	100.2	98.7	96.0
100~199	99.2	98.8	100.3	100.1	102.7	96.6	95.2	94.2	91.9
100 미만	95.9	94.9	97.0	96.5	92.8	95.1	90.5	89.5	84.9
전 체	101.5	103.0	104.5	103.8	103.4	100.6	98.0	97.4	94.3

■ 더구나 소비와 소비심리가 3년 이상 극도로 위축되었다 겨우 회생하는 시점에 나타난 세부담 증가는 더 큰 충격으로 작용

- 조세부담 증대조치가 아마도 경제가 정상적인 시점에 취해졌더라면 그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었을지 모름

〈표 참고-3〉 소비관련지표 추이

	3월	4월	5월	6월	7월
백화점매출(전년동월비, %)	6.3	8.2	7.6	4.8	-0.1
할인점매출(전년동월비, %)	2.1	3.1	2.6	1.0	-0.1
신용카드사용액(전년동월비, %)	17.6	15.6	16.3	14.6	11.3
국산자동차내수(전년동월비, %)	9.7	-4.0	1.6	-0.9	-26.5
소비자기대지수(통계청, 100 기준)	103.4	100.6	98.0	97.4	94.3

- 설비(무형고정자산 포함)투자: 2006년 하반기 5.6%, 연간 6.3%, 2007년 연간 5.1%
 - 그동안의 투자부진으로 투자압력(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지난해 4분기 이후 80%대 지속)이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기업투자환경의 개선이 없어 가시적 투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움

- 건설투자: 2006년 하반기 0.1%, 연간 -0.8%, 2007년 연간 0.9%
 - 부동산가격 억제정책 등으로 건설경기 위축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건설투자 관련지표의 둔화 추세를 감안할 때, 하반기에도 건설투자가 회복될 가능성은 낮음
 - 다만, 하반기 수해복구와 함께 공공부문의 투자확대 계획에 따라 상반기보다는 개선될 여지가 있으나 민간건설이 호조였던 2002년 하반기와는 달리 지금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민간건설이 부진한 상태여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데에는 한계
 -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건설투자의 부진이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 다만 2006년 마이너스 증가율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약 1%의 플러스 증가율을 보일 전망

■ 물가

- 소비자물가: 2006년 하반기 2.7%, 연간 2.5%, 2007년 연간 2.7%
 - 그동안 누적된 디플레이션 갭으로 인한 수요측면에서의 하락요인보다 고유가 등 공급측면 가격상승 요인이 더 커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예상되는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년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은 올해의 2.5%보다 높아질 전망

■ 대외부문

- 상품수출(국제수지 기준): 2006년 하반기 13.9%, 연간 13.9%, 2007년 연간 8.6%
 -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타지역 수출호조세에 힘입어 올 상반기까지 예상보다 양호한 모습 유지

- 하지만 향후에는 고유가,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미국, 중국 등 우리의 주요 교역국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출증가율 둔화가 예상됨
 -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미, 대중 수출증가세 최근 크게 둔화. 대중국 수출은 올 2사분기 한 자릿수 증가율로 둔화되었으며 7월 중에는 5.2% 증가에 그침. 대미수출도 올 상반기 회복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첫 달인 7월 자동차(-44.5%), 무선통신기기(-14.9%) 등의 부진으로 증가율(2.9%) 크게 하락
- 상품수입(국제수지 기준): 2006년 하반기 18.5%, 연간 19.2%, 2007년 연간 10.2%
- 내수회복세 약화, 수출증가세 둔화, 완만한 원화절상 등의 영향으로 수입증가세는 둔화될 전망
- 경상수지: 2006년 하반기 24억 달러 흑자, 연간 20억 달러 흑자, 2007년 연간 22억 달러 적자
-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폭이 감소하고 서비스수지 적자확대 추세가 계속되면서 전체 경상수지는 올 하반기 소폭 흑자에서 내년에는 적자로 반전될 전망

■ 금리와 환율

- 회사채수익률(3년 만기, AA-): 2006년 하반기 5.1%, 연간 5.2%, 2007년 연간 5.0%
- 한국은행이 8월 중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물가불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콜금리 목표를 인상함에 따라 경기상황이 급변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연말까지 없을 것으로 예상
 - 내년에는 미국경제 및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인한 수출증가세 둔화, 내수성장의 둔화,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에 따라 투자심리 개선이 미약하고 한국은행이 통화완화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음. 시중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장기금리는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단기적인 등락은 있겠지만 경기둔화 추세를 반영하여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전망

- 원화환율: 2006년 하반기 953원, 연간 958원, 2007년 연간 930원대
 - 달러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던 2004년 이후 17차례의 FRB의 금리 인상이 올 8월 중단됨으로써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등 달러약세 요인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원달러 환율 하락 가능성으로 작용
 - 그리고 일본과 유럽 등 주요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위안화의 추가 절상 가능성 등도 원달러 환율의 하락요인으로 가세할 전망
 - 그러나 경상수지가 흑자폭 감소 내지는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원달러환율의 하방경직성으로 작용

<표 II -2> 2006~2007년 국내경제전망

(전년동기비, %, 억 달러)

	2005	2006					2007
	연간	1/4	2/4	3/4	4/4	연간	연간
GDP	4.0	6.1	5.3	4.5	3.3	4.7	4.1
(SA, 전기비 연율%)		4.9	3.3	2.7	2.8		
민간소비	3.2	4.8	4.4	3.9	3.7	4.2	3.8
건설투자	0.4	1.2	-4.0	1.3	-1.1	-0.8	0.9
설비+무형고정자산	4.9	6.7	7.4	5.8	5.3	6.3	5.1
수출(재화+서비스)	8.5	11.5	15.3	11.1	8.8	11.6	8.2
수입(재화+서비스)	6.9	12.3	13.3	11.1	9.5	11.5	8.1
소비자물가	2.8	2.3	2.4	2.5	2.9	2.5	2.7
생산자물가	2.1	1.7	2.7	2.8	2.8	2.5	2.6
경상수지(억 달러)	165.6	-11.2	6.9	1.0	23.0	19.7	-22.4
상품수지(억 달러)	334.7	52.2	74.1	53.0	65.0	244.4	216.6
수출(억 달러, BOP 기준)	2890.0	758.0	821.3	835.0	877.0	3291.3	3574.3
증가율%	12.1	11.4	16.3	15.4	12.5	13.9	8.6
수입(억 달러, BOP 기준)	2555.2	705.8	747.1	782.0	812.0	3046.9	3357.7
증가율%	16.4	19.8	20.5	20.7	16.2	19.2	10.2
서비스 및 기타수지	-169.1	-63.4	-67.2	-52.0	-42.0	-224.6	-239.0
환율(원/달러, 평균)	1024	976	949	958	950	958	934
회사채수익률(3yrs, AA-)	4.7	5.4	5.2	5.1	5.1	5.2	5.0
실업률(%)	3.8	3.9	3.4	3.3	3.3	3.5	3.7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분기모형

제3장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1.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부진 현황 및 원인
2.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3.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제 개편
4. 규제완화

1.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부진 현황 및 원인

■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부진의 현황

- 외환위기 이전까지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던 설비투자는 2001년 이후 매우 부진한 모습

■ 2001~2005년 연평균 실질 설비투자(국민계정) 증가율이 1.2%에 머물고 있고, 2005년 실질 설비투자가 78.2조원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의 77.8조원을 겨우 넘어선 수준

- 2003년 취업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일자리 창출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지만 여전히 부진한 모습

- 2004~2005년 중 취업자 증가율은 1%대의 저조한 수준에 그침
- 실업률은 2002년 3.3%에서 2003~2005년에는 3.7%로 상승

■ 이는 경제구조의 변화의 탓도 있겠으나 투자 및 고용확대를 어렵게 하는 제도 및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

- 경제구조의 변화

- 자금수급의 구조변화(보수적으로 변한 기업투자행태, 기업대출에 소극적인 은행 등)에 따른 투자부진
- 산업구조 변화(노동집약적 → 기술 및 자본집약적)에 따른 고용부진
- 글로벌 아웃소싱 증가 등에 따른 국내투자 및 고용 부진

- 투자 및 고용확대를 어렵게 하는 제도 및 관행

- 각종 규제나 제도
-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강성노조
- 국내투자유인 미흡 등

■ 따라서 투자 및 고용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의 제도 및 관행의 개선노력이 우선적으로 요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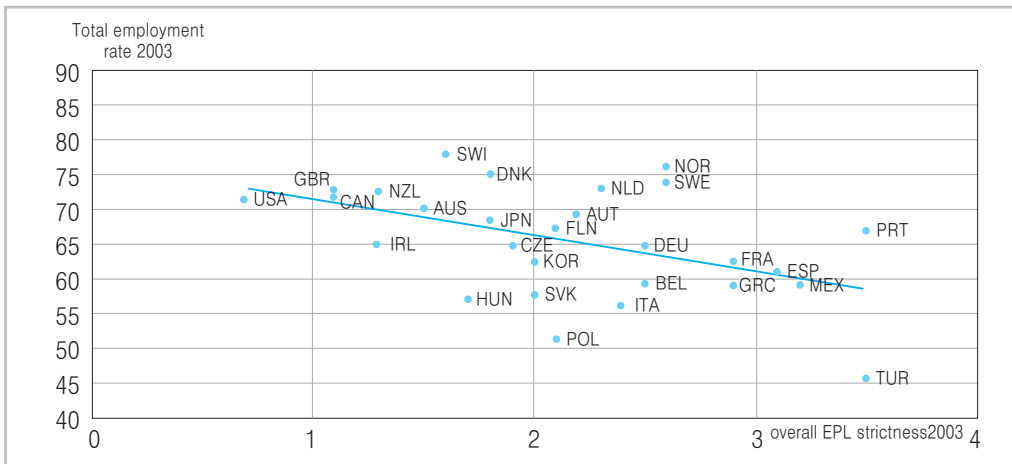
-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제 개편
- 출자총액제한, 수도권 규제 등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의 완화 및 폐지

2.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높은 고용비용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고용회피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됨

- OECD는 고용보호법제의 강도로 평가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을수록 고용률은 낮은 것으로 분석(OECD, Employment Outlook 2004 참조)
- 2003년 통계로 볼 때, 고용보호법(EPL: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의 강도와 고용률(15~64세 인구 중 취업자 비중)간 상관관계는 -0.47로 나타남

〈그림 III -1〉 OECD 국가의 고용률과 노동시장 경직성



■ 이는 고용자 과보호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고용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의미

- 2003년 우리나라의 고용률(15~64세 기준)은 63.2%로 만약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고용률이 주요국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다음과 같은 고용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표 Ⅲ-1〉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고용증가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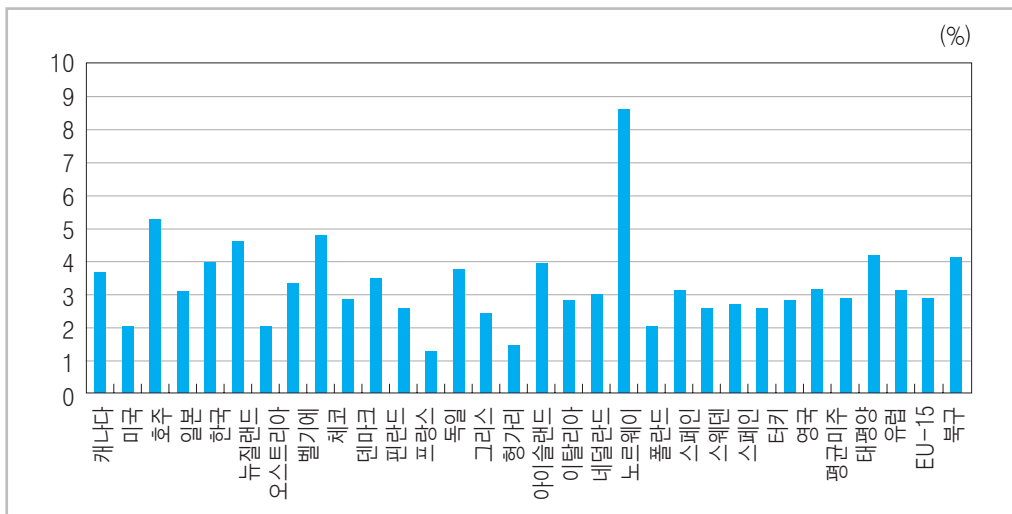
한국의 고용률(2003년, 63.2%)	취업자수	고용증가
일본 수준(68.4%)이 될 경우	22,291	+1,671
호주 수준(70.0%)이 될 경우	22,812	+2,192
캐나다 수준(72.2%)이 될 경우	23,529	+2,909

3.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제 개편

■ 성장잠재력 확충과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 시급

- IMF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노르웨이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상태에 있음

〈그림 III-2〉 GDP 대비 법인세율의 국제비교



-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국제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세계 각국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자본유출을 막고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더욱이 향후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5% 이하로 전망되고 있어 법인세 인하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 법인세 인하는 자본수익률을 증가시켜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표 III-2>는 기존의 실증분석연구를 보여 주고 있음
 - 분석결과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 법인세 변화율을 모두 법인세 1%p 인하되는 것으로 재조정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⁴⁾
 - 법인세가 1%p 인하되면 실질GDP는 0.11~0.18% 증가⁵⁾하고, 투자는 0.13~2.1% 증가하고, 소비는 0.09% 증가

<표 III-2> 법인세 인하 관련 연구결과

(%)

	법인세 변화율	분석모형	실질 GDP	고용	투자 (자본)	소비
한국은행(1998)	10% 인하	거시계량모형	0.27			
전영준(2003) ¹⁾	5.7%p 인하	세대중복형 CGE	0.79 (0.13)		2.99 (0.18)	
금재호 외(2005)	0.23%p 인상	CGE	-	0.028	-0.48	
조경엽(2006) ²⁾	2%p 인하	CGE 모형	0.36	-0.57	0.25	0.18

주: 1) 전영준(2003) 연구결과는 2003년 효과(단기효과)를 나타내며 () 안의 값은 2003~2010년의 누적효과
의 평균값임

2) 조경엽(2006)은 단계적으로 법인세가 2%p 인하되기 때문에 2003~2006년간 변화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소득세제 개편

-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표양성화율을 높이는 한편 면세
점을 인하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세베이스를 확대
 - 소득세 부담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으나 이는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율
이 낮고 면세점이 높아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가 세부담을 하지 않는 것에 기인

4) 이는 법인세가 선형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것임

5) 한국은행(1998)은 1988년 평균실효법인세율을 박기백·김진(2004)의 추정치 23.74%로 가정하고
여기서 1%p 인하율을 추정하였음. 즉 23.74%에서 10%가 감소하면 21.37%가 되기 때문에 한국은
행(1998)의 연구결과는 법인세 2.37%p 인하 효과를 보여 주고 있음. 이를 법인세 1%p 하락으로 조
정할 경우 GDP는 0.11% 증가한 결과를 가져옴

- 과표양성화율과 과세베이스의 확대로 증가하는 세수는 소득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
 - 이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제도의 기본 목표와 부합하는 것이며 또한 세율 인하는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 소득세 1%p 인하 시 GDP는 약 0.235% 증가하고 고용은 0.079~0.14% 증가하고, 투자는 0.17~3.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III-3〉 소득세 인하 관련 연구결과

(%)

	법인세 변화율	분석모형	실질 GDP	고용	투자(자본)	소비
금재호 외(2005)	0.228%p 인상	CGE	-	-0.018	-0.696	
조경엽(2006)	1%p 인하	CGE	0.235	0.14	0.17	0.53

4. 규제완화

■ 출자총액제한 폐지

- 출자의 목적은 신규사업 진출 또는 기존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에 있는데, 출자총액제한 규제는 이와 같은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활동을 제약
 - 자본시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열사에 대한 출자마저 규제될 경우 신규 유망산업 진출이나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주력업종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이 지체
 - 출자총액제한을 지속해 온 기간 동안 기업들이 누적적으로 투자기회를 상실하였을 것을 고려하면 이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 창출 지연과 경쟁력 저하가 유발되었을 것으로 추정(전경련이 2001년에도 실시하였던 조사에 따르면 당시 출자총액제한 규제로 인하여 39개사가 71개의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였고 그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조2,000억원에 이르렀음)

- 출자는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하나의 방법이므로, 계열사로부터의 출자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음
 - 김현종 · 이인권(2005)은 1987~2003년 동안의 기업집단의 상장 · 비상장 계열사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계열사로부터의 출자가 증가할수록 설비투자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⁶⁾
 - 고동수 · 조현승 · 박민수(2006)는 1987~2003년 동안의 출자총액제한규제 대상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출자와 투자의 실증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출자비율과 투자율간에 정(正)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발표⁷⁾
 - 전경련이 2006년 8월에 출자총액제한 대상 14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출자총액제한이 폐지되면 향후 2년 내 신규투자 규모가 총 14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

6) 김현종 · 이인권, 「계열사 출자 및 실물투자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경제연구』, 제15권 제2호, 2005년 12월호, pp.87-118.

7) 고동수 · 조현승 · 박민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투자의 관계」, 산업연구원, 2006. 8.

■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

- 수도권 규제로 인구분산을 추진하려는 정책은 효과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규제의 부작용을 유발
 - 입지규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은 집중 억제정책이 특정시기에 서울에 밀집된 시설들을 광역수도권으로 확산시키는 기여도 하였지만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
- 수도권의 경제발전을 억제하면 비수도권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비현실적 규제
 - 손재영(2001)은 1970~1998년 동안의 종업원수 증가율과 부가가치 증가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수도권 제조업의 고용이 증가하여도 비수도권 제조업의 고용이 감소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의 목적이 잘못되었음을 증명⁸⁾
 - 더구나 한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대만,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더불어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비수도권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경쟁국으로 투자하도록 작용
-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와 생산효율성 제고
 - 박현수 외(2004)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7조6,919억원의 부가가치 증대 및 GDP 2.7% 추가성장이 기대된다고 예측한 바 있음⁹⁾ (<표 III-4> 참조)

8) 손재영, 「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신도시 개발방향」, 한국경제학회 주최 특별세미나 발표논문, 2001. 2.

9) 박현수 외, 「수도권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 수도권 규제가 기업이 생산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위탁연구 2004-02, 2004. 11.

〈표 III-4〉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의 기대효과

구 분		생산액(억원)	부가가치(억원)	부지면적(1,000m ²)
공장증설 규제완화	대기업	54,348	24,227	1,287
	중소기업	671	297	77
	소계	55,019	24,574	1,364
공장건축총량 규제완화	대기업	107,980	52,345	4,417
	중소기업	43,039	20,697	1,558
	소계	107,980	52,345	4,417
합 계		162,999	76,919	5,781

자료: 박헌수 외(2004), p.10.

〈부록〉

주요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경제성장률		1인당	소비		투자		
	GDP	제조업	GNI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 대비(%)		US \$	전년동기 대비(%)				
2002년	7.0	7.6	11,499	7.9	6.0	6.6	7.5	5.3
2003년	3.1	5.5	12,720	-1.2	3.8	4.0	-1.2	7.9
2004년	4.7	11.4	14,193	-0.3	3.7	2.1	3.8	1.1
2005년	4.0	7.0	16,291	3.2	4.3	2.3	5.1	0.3
4/4	7.5	11.4		5.5	4.2	9.1	9.6	8.4
2003년 1/4	3.7	5.8		0.7	4.0	4.7	2.3	7.7
2/4	2.2	3.3		-1.5	3.7	4.2	-0.4	7.9
3/4	2.4	4.2		-2.0	3.5	2.7	-4.6	7.7
4/4	3.9	8.6		-2.0	3.5	4.3	-2.0	8.3
2004년 1/4	5.3	11.9		-1.3	3.7	2.4	-0.1	4.9
2/4	5.5	13.6	-0.3	4.8	4.7	6.4	3.8	
3/4	4.7	11.7		-0.7	3.7	2.9	6.8	1.0
4/4	3.3	7.7		0.9	2.9	-1.1	2.4	-3.3
2005년 1/4	2.7	5.1		1.6	3.2	0.4	2.9	-2.2
2/4	3.2	5.0		3.0	4.2	2.0	2.7	1.6
3/4	4.5	7.4		4.0	5.1	1.9	4.3	0.3
4/4	5.3	10.2		4.2	4.8	4.2	10.2	0.9
2006년 1/4	6.1	9.9		4.8	5.4	3.9	6.9	1.2
2/4	5.3	9.0		4.4		0.7	7.7	-0.4

무역 · 국제수지

	무역				국제수지		외환보유액 ¹⁾	대미환율
	수출(FOB)		수입(CIF)		상품	경상	(기말)	(기말)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원/달러	
2002년	1,624.7	8.0	1,521.3	7.8	147.8	53.9	1,214.1	1,200.4
2003년	1,938.2	19.3	1,788.3	17.6	219.5	119.5	1,553.5	1,197.8
2004년	2,538.4	31.0	2,244.6	25.5	375.7	281.7	1,990.7	1,043.8
2005년	2,844.2	12.0	2,612.4	16.4	334.7	165.6	2,103.9	1,011.6
2004년 12월	232.0	17.6	209.7	19.0	29.4	22.1	1,990.7	1,035.1
2005년 1월	224.5	18.3	194.5	20.0	44.9	38.8	1,997.0	1,026.4
2월	204.0	6.6	184.0	5.3	15.9	9.5	2,021.6	1,008.1
3월	239.5	13.1	227.8	19.1	30.7	10.5	2,054.4	1,024.3
4월	228.7	6.5	212.4	12.8	23.3	-9.9	2,063.8	1,001.8
5월	231.2	11.0	211.6	18.3	26.1	13.6	2,061.0	1,002.5
6월	237.1	9.5	212.9	14.8	3.7	22.4	2,049.9	1,024.4
7월	232.4	10.6	215.1	17.0	31.7	14.5	2,056.9	1,025.7
8월	233.4	17.9	220.0	21.4	15.9	-4.9	2,067.1	1,031.0
9월	245.2	17.7	227.2	24.9	28.3	16.9	2,067.3	1,038.0
10월	253.5	11.9	226.5	11.0	31.1	26.9	2,073.1	1,042.7
11월	258.3	11.9	238.5	17.4	31.8	22.0	2,082.3	1,036.3
12월	256.3	10.5	241.9	15.4	18.1	5.4	2,103.9	1,013.0
2006년 1월	232.6	3.6	229.4	18.0	14.8	1.0	2,169.3	972.0
2월	237.9	16.6	233.9	27.3	8.3	-7.8	2,159.5	969.0
3월	268.5	12.1	257.6	13.1	2.91	-4.3	2,173.4	975.5
4월	256.0	11.9	243.1	14.5	18.8	-16.1	2,228.9	942.0
5월	279.2	20.7	260.6	23.1	28.2	13.6	2,246.9	948.0
6월	279.6	17.9	259.5	22.0	28.7	11.0	2,243.6	955.0
7월	260.2	12.0	254.6	18.2	18.0	-21.2	2,257.2	954.0
8월	277.1	18.7	169.0	23.1			2,270.2	962.0

주: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물가 · 실업 · 이자율

	물가 ²⁾		실업률	제조업	통화 ³⁾		회사채	주가지수
	생산자	소비자	(계절조정)	명목임금	신M2	M3	수익률	80.1.4=100
	전년동기 대비(%)		(%)	전년동기 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2002년	-0.3(2.3)	2.7(3.7)	3.1	11.9	11.5	12.9	6.59	757.0
2003년	2.2(3.1)	3.6(3.4)	3.4	8.7	7.9	8.8	5.43	679.8
2004년	6.1(5.3)	3.6(3.0)	3.5	9.5	4.6	6.1	4.71	832.9
2005년	2.1(1.7)	2.7(2.6)	3.7	8.1	6.9	7.0	4.69	1,073.6
12월	5.3(5.3)	3.0(3.0)	3.7(3.5)	22.7	5.9	6.9	3.73	873.1
2005년 1월	4.1(0.2)	3.1(0.7)	4.2(3.8)	-4.7	6.3	7.0	4.11	903.4
2월	3.2(0.6)	3.3(1.3)	4.3(3.7)	27.7	6.4	6.8	4.63	964.5
3월	2.7(1.0)	3.1(2.1)	4.1(3.6)	8.5	6.6	6.4	4.48	988.2
4월	2.9(1.7)	3.1(2.2)	3.8(3.7)	11.7	7.0	6.6	4.28	955.4
5월	2.0(1.1)	3.1(2.0)	3.5(3.7)	7.4	7.0	6.6	4.12	939.0
6월	1.6(0.6)	2.7(1.6)	3.6(3.8)	11.0	7.4	7.1	4.18	991.3
7월	2.0(1.4)	2.5(2.1)	3.7(3.8)	6.6	7.9	7.5	4.52	1,058.7
8월	1.4(1.7)	2.0(2.4)	3.6(3.7)	9.7	7.7	7.6	4.75	1,101.8
9월	1.6(2.2)	2.7(3.1)	3.6(4.0)	5.8	6.5	6.9	4.92	1,171.0
10월	1.7(2.4)	2.5(2.9)	3.6(3.9)	10.3	6.5	6.9	5.20	1,190.9
11월	1.1(1.8)	2.4(2.3)	3.3(3.5)	7.6	6.6	7.2	5.50	1,253.3
12월	1.7(1.7)	2.6(2.6)	3.5(3.5)	0.9	7.0	7.3	5.49	1,338.8
2006년 1월	2.1(0.6)	2.8(0.8)	3.7(3.4)	24.6	7.3	7.2	5.50	1,379.3
2월	1.7(0.6)	2.3(1.0)	4.1(3.5)	-11.4	7.2	7.4	5.33	1,341.7
3월	1.4(0.6)	2.0(1.5)	3.9(3.5)	5.8	6.6	7.0	5.30	1,331.7
4월	1.5(1.5)	2.0(1.6)	3.5(3.5)	3.7	6.8	7.4	5.24	1,415.9
5월	2.6(2.1)	2.4(1.8)	3.2(3.4)	7.9	7.1	7.6	5.05	1,388.8
6월	3.2(2.1)	2.6(1.6)	3.4(3.5)		7.7	7.3	5.17	1,249.2
7월	2.8(2.5)	2.3(1.8)	3.4(3.5)				5.18	1,278.6
8월		2.9(2.7)					5.09	1,316.0

주: 2) () 안은 전년말월 대비 증가율
3) 평잔기준

산업활동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업	평균 가동률(%)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 ⁴⁾	국내기계 수주 ⁵⁾	설비투자 추계	건설 수주	건설기성		
								공공	민간	
전년동기 대비(%)										
2001년	0.7	75.3	6.7	2.6	-1.0	-9.1	22.1	10.0	4.4	14.6
2002년	8.0	78.4	8.3	8.3	21.0	8.4	33.0	11.2	-8.1	24.5
2003년	5.0	78.3	-1.1	-34	-8.7	-2.3	19.3	16.6	10.7	20.6
2004년	10.5	80.4	-0.6	-1.4	6.8	1.4	-3.9	11.1	5.3	14.4
2005년	6.3	79.8	2.6	2.1	1.5	3.4	9.5	5.7	-0.7	9.8
12월	4.6	79.7	-0.0	-6.2	-9.9	-1.8	39.9	-0.2	-10.3	5.7
2005년 1월	14.6	81.9	-2.8	0.9	0.7	15.50	9.1	3.6	-0.8	5.4
2월	-7.2	77.2	-1.4	-11.4	-18.7	-3.7	-20.6	-3.3	-1.0	-4.2
3월	4.8	80.9	1.6	-3.4	-3.2	1.9	71.6	4.7	-1.2	7.3
4월	3.6	78.8	1.7	-3.7	-10.0	0.3	25.8	7.8	-1.2	12.3
5월	3.9	78.0	4.2	1.4	-14.5	8.4	51.7	10.5	4.5	13.7
6월	4.0	80.1	3.1	3.8	-12.2	-3.7	37.1	10.6	6.0	12.8
7월	6.8	80.5	3.3	4.1	26.2	4.3	6.3	4.5	-1.6	7.1
8월	6.6	78.6	5.3	6.3	18.3	-0.3	18.3	5.0	-10.0	10.7
9월	7.6	79.0	3.5	4.8	0.1	-1.6	27.8	4.3	-7.7	7.9
10월	7.7	79.3	2.3	4.9	0.7	1.6	-35.3	2.6	-3.3	5.3
11월	11.8	82.1	5.7	8.1	11.7	6.6	3.6	3.0	-2.4	7.5
12월	11.3	79.4	5.4	8.7	42.8	12.6	-17.0	11.3	5.2	5.5
2006년 1월	6.9	83.5	4.1	2.8	2.0	0.1	10.9	2.5	-10.3	8.5
2월	20.6	80.9	2.8	12.3	38.7	2.4	22.2	9.2	-12.8	18.2
3월	10.0	81.5	4.0	5.5	-0.1	9.6	-34.5	5.9	-7.5	11.8
4월	9.9	79.0	3.8	4.2	15.3	7.1	-18.8	2.0	-4.6	5.2
5월	12.1	80.6	4.5	6.4	12.6	2.5	-17.9	1.0	-3.2	2.7
6월	10.9	82.0	3.9	5.0	34.8	3.0	-7.7	1.1	-4.3	3.7
7월	4.4	76.9	0.7	-2.2	6.6	4.2	7.3	-0.7	-0.1	0.1

주: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 제외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판1쇄 인쇄/2006년 8월 27일

1판1쇄 발행/2006년 8월 31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노성태

편집인/허찬국

등록번호/제318-1982-000003호

(150-75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 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6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